

---

고려대학교 2013학년도 모의논술고사

---

# 논술 자료집

고려대학교 입학처

<http://oku.korea.ac.kr>



# 차 례

## [인문계]

논술 문제지 .....	6
<b>I. 출제의도와 문제해설 (인문계) .....</b>	<b>10</b>
1. 2013학년도 논술고사 출제와 기본 방향 .....	10
2. 주제 및 제시문 해설 .....	10
3. 논제 해설 .....	12
<b>II. 논제별 답안 사례와 평가 (인문계) .....</b>	<b>15</b>
1. [논제 I] 우수 답안 사례 .....	15
2. [논제 I] 부족 답안 사례 .....	18
3. [논제 II] 우수 답안 사례 .....	21
4. [논제 II] 부족 답안 사례 .....	22

## [자연계]

논술문제지 .....	26
<b>출제의도와 문제해설 (자연계) .....</b>	<b>36</b>
1. 2013학년도 자연계 논술의 목표와 기본방향 .....	36
2. 출제 의도와 논제 해설, 예시 답안 및 평가 .....	37
가) 논제 1 .....	37
나) 논제 2 .....	40
다) 논제 3 .....	42
라) 논제 4 .....	46
마) 논제 5 .....	52

# 인문계





# 논술

## (인문계)

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 (1)

19세기 근대 역사주의를 주창한 랑케(Leopold von Ranke)는 이전의 자의적인 역사 연구와 서술을 부정하고 엄격한 사료 비판에 근거한 객관적 서술을 지향하여 역사학을 과학의 경지로 끌어올리려고 하였다. 그는 17-18세기를 통해 발전되어 온 사료 비판의 방법을 종합하여 본격적인 역사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는 고문서 자료 등 1차 사료를 더 신뢰하면서 이를 면밀히 분석하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눈으로 당시를 바라볼 수 있다고 믿었다. 즉 과거에 ‘사실(fact)’이 엄연히 존재하였으므로, 역사가는 그것이 기록된 문서를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당시의 상황을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랑케는 주관과 객관 사이의 간극을 사료 비판과 직관적 이해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역사가는 사료의 언어를 감정이입을 통해 이해함으로써 과거를 있는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콜링우드(Robin Collingwood)는 역사적 사실은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자료를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탐구하여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과학이라면 역사는 이러한 과학과 거리가 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이라는 과거는 역사가에 의해 구성되고 그 의미 또한 역사가에 의해 부여되기 때문이다. 과거는 과거의 시점에서 볼 때 실존적이지만 현재의 시점에서는 관념적일 뿐이다. 역사가가 알 수 있는 과거는 사료를 통한 것이 전부이다. 따라서 역사가는 과거에 대해 매개적이고, 추정적이며, 간접적인 인식 이상을 가질 수 없다. 이는 다시 말해 역사적 사실은 항상 오염되어 있어서 과학적 객관성을 획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역사적 의미 역시 그 과거에 대해 제한된 인식을 가진 역사가에 의해서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사적 사실이 순수한 형태로 존재할 수 없음은 자명해진다. 명백한 증거를 기초로 진실을 추구하는 과학적 방법으로 파악되는 역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역사는 역사가의 의식 속에서 재구성될 뿐이다.

카(E. H. Carr)에 따르면 역사가는 ‘가위와 풀의 역사’, 다시 말해 단순히 과거 사실을 기계적으로 편집하는 역사를 쓰거나, 현재의 목적을 위해 과거 사실을 주관적으로 왜곡하는 오류를 모두 피해야 한다.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 간의 관계에서 역사가들은 의견상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역사가는 역사를 사실의 객관적 편집으로 보아 사실이 해석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는 이론과, 역사를 역사가의 주관적 마음의 산물이라고 보아 역사적 사실을 확립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이

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곡예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역사가는 무게중심을 과거에 두는 역사관과 현재에 두는 역사관 사이에서 위험하게 항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보기보다는 덜 위태롭다. 역사가는 사실 앞에 비천하게 무릎 꿇는 노예도 아니고, 사실을 지배하는 폭군적인 주인도 아니다.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관계는 평등하다. 즉 주고받는 관계이다.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의 연속적인 상호작용이고,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 (2)

문학은 경험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상상력을 통해 재구성하고 재창조한다. 문학은 신문 기사나 보고서, 실록 등과 같은 기록물들과 다르다. 문학은 상상의 산물이므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허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의 허구는 독자에게 사실처럼 여겨진다. 소설의 등장인물들이 현실 속에 살아 있을 것처럼 보이고 소설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이 이 세상 어딘가에서 실제로 벌어질 것 같기도 하다. 디킨스(Charles Dickens)의 소설들은 연재 당시 독자들로부터 열렬한 사랑을 받았다. 독자들은 디킨스 소설의 주인공을 실존 인물로 착각할 정도였고 주인공의 운명을 걱정한 나머지 디킨스에게 그를 불행하게 만들지 말라고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특히 「골동품상점」의 ‘어린 넬’이 죽는 연재분이 배포되었을 때는 비록 가공의 인물이 죽었음에도 전 영국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가정과 일터와 거리에서 사람들은 해당 호를 손에 든 채 눈물을 흘렸다. 문학의 역사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드물지 않다. 그 사례들은 문학의 허구가 현실 세계에 대해 얼마나 큰 사실적 호소력을 지닐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문학이 경험 현실에서 취한 소재를 두고서 전개하는 상상은 결코 허황되지 않아서 그 상상이 창조한 허구는 우리의 감수성에 구체적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문학은 허구이긴 하지만 그 허구 속에는 사실 이상의 진실이 담겨 있고 그 진실의 호소력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자아낸다. 그 감동이 동일한 작품을 읽은 사람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문학은 소통의 방법으로 기능한다. 우리는 문학이 전개하는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대면하게 된다.

## (3)

언론 보도의 객관성은 언론 윤리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이다. 언론의 객관성은 정확하고 선입견이 배제된 보도를 통해 보장된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자는 평가와 판단을 유보하고 오로지 일어난 사실 그 자체만을 보도해야 한다.

그러나 보도의 절대적 객관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주장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버거(Peter Berger)와 루크만(Thomas Luckmann)은 해석 공동체의 존재가 언론의 객관성이라는 개념 혹은 가치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주관적인 의미가 객관적인 사실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강조하면서, 한 사회의 독자적이고 독특한 실재에 대한 적절한 이해는 그것이 구성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객관성은 지배적인 집단을 통한 사회체계의 구조화 과정을 거쳐서 생겨난다. 해석

공동체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성의 개념만을 강조할 경우, 언론은 특수한 사회적 실재 혹은 사실을 지나치게 일반화하거나 과장되게 보도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즉 실재의 재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제결혼을 한 조선족 여성들에 대한 언론 보도의 경우 초기에는 그들을 ‘우리 농촌을 구할 수 있는 동포 처녀들’로 소개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해 추구에 필요한 법적 지위를 얻기 위해 국제결혼을 이용하는 자들’이라거나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결혼중개업자들의 공모자들’로 그려졌다. 물론 상당수의 결혼이주여성들이 경제적인 동기에서 한국 남성들과의 결혼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여성들에 대해 물질적 이해를 좇는 타산적인 이미지만을 강조하는 보도 방식은 그들의 다양한 결혼 동기들을 경제적 신분 상승을 위한 것으로 단순화시킨다. 1997년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에게 자동적으로 국적을 부여했던 법이 결혼 후 최소 2년이 경과하는 조건으로 개정되었다. 언론 보도가 이러한 법 개정에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4)

가.

신문과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와 함께 최근에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s)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 신문과 SNS에 유통되는 거짓 정보의 비율이 같다는 가설을 H, 신문에 비해 SNS에 유통되는 거짓 정보의 비율이 더 높다는 가설을 K라고 한다. H와 K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에서 초래되는 손실은 <표 1>과 같다.

<표 1> 손실 구조

	H를 선택	K를 선택
H가 참(true)	0	1
K가 참(true)	1	0

나.

의사결정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신문에 보도된 특정 정보가 거짓이라고 응답한 수를 X라 하고, SNS에 유통된 같은 정보가 거짓이라고 응답한 수를 Y라고 할 때, <표 2>와 같은 확률분포를 가정하자.

<표 2> 확률분포

	X=Y	X>Y	X<Y
H가 참(true)	0.2	0.4	0.4
K가 참(true)	0.1	0.3	0.6



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의사결정 방법(A1, A2, A3, A4)을 고려하자.

A1: 언제나 H를 선택

A2: 언제나 K를 선택

A3:  $X > Y$ 이면 H,  $X \leq Y$ 이면 K를 선택

A4:  $X \geq Y$ 이면 H,  $X < Y$ 이면 K를 선택

라.

위의 <표 1>과 같은 손실 구조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발생하는 기대손실은 오류를 범할 확률로 표현된다. 가령 A3을 사용하는 경우, H가 참일 때 K를 선택하는 오류를 범할 확률은 0.6이다(H가 참일 때,  $X < Y$ 일 확률 0.4와  $X = Y$ 일 확률 0.2의 합).

I. (1)의 내용을 바탕으로 (2)와 (3)에 나타난 '사실'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75점)

II. (4)를 읽고 다음 논제에 답하시오. (25점)

- 만약 K가 참인 경우, 주어진 의사결정 방법들 중 기대손실을 기준으로 선택 순서는 A2, A3, A4, A1이다. 그 이유를 논하시오.
- 의사결정 방법 A3과 A4 중에서 기대손실을 기준으로 A4를 선택하는 경우 그 근거를 논하시오.

※ 유의 사항

- 답안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하지 말 것.
- 답안에 제목을 달지 말 것.
-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 것.
-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은 900자(±50자)로 하고, 2는 자수에 제한 없이 쓰되 답안지의 테두리선을 벗어나지 말 것.

# I. 출제의도와 문제해설 (인문계)

## 1. 2013학년도 논술고사 출제와 기본 방향

2013학년도 고려대학교 인문계 논술고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모의 논술고사를 실시했다. 모의 논술고사는 고려대학교 수시 전형의 논술고사에 응시하려는 학생들이 시험의 개괄적 형식과 방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되었다. 실제 논술고사는 본 모의 논술고사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되 제시문과 논제의 유형과 배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둔다.

2013년 모의 논술고사를 통해 제시된 본 논술고사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가)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시험의 평가요소를 보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다양한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교하여 서술하는 능력
- 2) 제시문에서 주제의 핵심을 적절히 추론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논술 능력
- 3) 인간 및 사회 현상의 분석을 위한 기초 수리적 사고 능력

나) 제시문의 난이도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평균 수준을 유지하되, 논제는 고등학교 상위권 수준의 이해 능력, 분석 능력, 추리 능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출제한다.

다) 2013년도 인문계 논술고사의 시험시간이 100분으로 축소된 것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시간의 부담을 크게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시문과 논제를 제시한다.

## 2. 주제 및 제시문 해설

2013학년도 고려대학교 모의 논술고사의 공통 주제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재구성’이다. 제시문들은 이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담은 글들이다.

(1)은 『포스트모더니즘과 역사학』 (김기봉 외), 『역사의 진실을 찾아서: 랑케 & 카』 (조지향), 『The Idea of History: With Lectures 1926-1928』 (Robin

Collingwood)와 『*What Is History?*』 (Edward Hallet Carr)에서 채록하여 출제 의도에 맞추어 변형한 글이다. 우선 역사 서술에서 고문서 등 일차 사료의 엄정한 선정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과거를 재현하려 한 랑케의 시각과 과거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역사가에 의해 구성되고 의미화 된다는 콜링우드의 구성주의적 관점을 대비시킨다. 그리고 과거 자체를 순수하게 복원한다는 입장과 현재적 해석으로 과거를 재구성한다는 입장 사이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시도했던 카의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기술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소개한 글이다.

(2)는 문학이 사실을 처리하는 방식을 서술함으로써 사실에 관한 문학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학은 사실로부터 취한 소재를 상상력으로 가공한다. 따라서 문학은 단순한 사실 재현이 아니라 사실에서 비롯한 허구이다. 그런데 문학은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실제로 벌어진 일보다 그것을 더 생생하게 여기고 사실 이상의 감동을 느끼기도 한다. (2)에서는 그러한 사례로서 찰스 디킨스의 소설과 관련한 일화를 소개한다. 문학이 허구임에도 독자에게 사실 이상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진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학이 전하는 진실은 사실 여부를 초월하는 본질적 가치라고 볼 때,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고서 감동하는 것은 그 가치에 공감하는 것이다. 문학이 전하는 진실의 감동은 독서행위를 통해 공유되기 때문에 문학은 소통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그로써 우리는 삶의 의미와 더불어 사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만나게 된다. 상상력이 빚어낸 허구가 현실적 효용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제시문은 문제 출제를 위해 출제진이 직접 집필한 글이다.

(3)은 『언론의 객관성에 대한 분석적 고찰』 (김상호), 『대상화와 문제화』 (김수미)에서 인용하여 변형한 글이다. 여기에서는 언론의 사실 보도가 그 자체로 절대적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한국 언론이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기사화하는 방식을 예로 든다. ‘사실의 사회적 구성’을 주장한 버거와 루크만의 시각에서 보면, 해석 공동체의 존재는 주관적 의미를 객관적 사실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재의 재현 과정에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며, 누구의 시선으로 사실을 바라보는가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배집단의 가치와 해석이 객관성을 획득하게 되는 사회적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사실을 발견해 어떻게 기사화하는가는 일종의 선택으로서 사회문화적 가치나 직업적 관행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의 다양성을 간과하며 결혼을 타산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만 부각시키는 보도 경향은 지나친 일반화와 과장 보도의 위험이 있다. 외부자에 대한 내부자의 불신과 경계, 낭만적 사랑과 순수한 결혼에 대한 이상이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

미지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4)는 사회에 유통되는 정보의 진위를 판단할 때의 의사결정문제에 대한 논리적 과정을 가상의 상황에서 다루고 있다. 참인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 의사결정이 옳으면 손실이 0이고 틀리면 손실이 1인 손실구조를 <표 1>과 같이 단순화하였다. 나아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설문조사 정보의 불확실성은 <표 2>와 같은 확률(probability)로 표현된다. 이에 따라 제시한 의사결정방법 A1, A2, A3, A4에 대한 비교의 기준으로 기대손실을 고려할 수 있다. 어떤 특정 의사결정방법에 대한 기대손실은 발생 가능한 손실을 해당 확률로 곱한 것들의 합이며, 이는 '라'에 특정 경우를 예로 들어 제시하였다. 이 문제는 논리적 사고 능력을 알아보고자 한 것으로, 유형이 다소 생소할 수도 있으나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는 아니며,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3. 논제 해설

#### 가) [논제 I] 평가 요소

논제 1은 900자 내외로 (1)의 내용을 바탕으로 (2)와 (3)에 나타난 관점을 비교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는 문제이다. [논제 1]의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다.

- 1) (1)에 제시된 역사 연구의 3가지 관점과 (2)와 (3)에 제시된 사례의 내용을 각각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 2) (1)에 제시된 3가지 관점에 비추어 (2) 문학과 상상력, (3) 언론과 객관성의 문제를 적절하게 연관시켜 비교하고 있는가?
- 3) (1), (2), (3)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밝히며 이를 논리적으로 논술하고 있는가?
- 4) 900자 분량의 비교적 긴 글을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구성하고 있는가?

#### 나) [논제 I] 답안 작성 포인트

- 1) (1)에 제시된 3가지 관점의 강조점과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 2) (2)에 제시된 ‘문학과 상상력’의 문제를 (1)에 제시된 관점과 연관하여 이해해야 한다. 문학과 상상력의 문제는 랑케의 관점보다는 콜링우드 혹은 카의 관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문학에서의 상상력의 문제가 콜링우드의 구성주의적 관점 혹은 과거를 순수하게 복원하는 입장과 현재적 해석으로 과거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입장 사이에 선 카의 관점에서 각각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서술해야 한다.
- 3) (3)에 제시된 ‘언론과 객관성’의 문제는 (1)에 제시된 랑케, 콜링우드 혹은 카의 관점과 모두 연관되어 설명될 수 있다. 랑케의 객관적 사료의 중요성과 연결하려면 객관 보도의 문제와 연관되어야 한다. 콜링우드의 구성주의 관점은 언론의 사실, 시평, 오피니언 등의 주장 및 논조의 문제와 연관된다.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주장한 카의 관점은 언론의 해석 공동체 문제와 관련해 설명될 수 있다. 어떤 비교를 선택하건 제시문에 등장한 ‘결혼이민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자신의 논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4) (1)에 제시된 3가지 관점과 (2)와 (3)에 제시된 사례를 바탕으로 ‘사실에 대한 인식과 재구성’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 혹은 주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자신의 생각 혹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문의 사례를 포함한 충분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5) 900자 분량의 상대적으로 긴 글이니만큼, 이해와 비교,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논술하기 위한 독창적이고 논리적인 구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답안지를 작성하기 전에 글의 전달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상이 필요하다.
- 6) 전체 답안지의 길이(850자~950자)를 벗어난 경우, 단락 구성의 완성도 부족, 문장의 완성도 부족, 원고지 사용법 오류, 철자법 오류 등은 감점 요인이 된다.

#### 다) [논제 II] 평가 요소

(4)는 가상의 상황에서 사회에 유통되는 정보의 진위 판단에 대한 논리적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설문조사 정보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제시한 의사결정방법 A1, A2, A3, A4에 대한 기대손실을 구해야한다. 나아가, H가 참인지 K가 참인지 모르는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기준으로 ‘최대기대손실’을 사

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는지가 평가의 주된 요소이다.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으나,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형식을 통해 응시자의 논리적 사고 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라) [논제 III] 답안 작성 포인트

- 1) 특정 경우 ‘라’를 예를 들어 제시한대로, 의사결정방법에 대한 기대손실은 발생 가능한 손실을 해당 확률로 곱한 것들의 합이다. 이에 따라, K가 참인 경우에 의사결정방법 A1, A2, A3, A4에 대한 기대손실은 다음의 표와 같이 구해진다.

K가 참인 경우 각 의사결정 방법들의 기대손실

의사결정방법	A1	A2	A3	A4
기대손실	1	0	0.3	0.4

따라서, 기대손실의 크기에 따라 A2, A3, A4, A1의 순서로 의사결정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 2) 1)번에서와 같이 K가 참이라면 A2가 가장 선호되는 의사결정 방법이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H가 참인지 K가 참인지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H가 참일 때와 K가 참일 때를 나누어 기대손실을 구해야 한다. 각 경우 기대손실을 구하면 다음 표와 같다.

	A1	A2	A3	A4
H가 참일 때	0	1	0.6	0.4
K가 참일 때	1	0	0.3	0.4

A3으로 의사결정을 선택하는 경우, K가 참이면 기대손실이 0.3으로 작은 편이지만 H가 참이면 기대손실이 0.6으로 커진다. 반면에 A4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H가 참이든 K가 참이든 0.4라는 기대손실을 가져온다. 따라서 A3으로 의사결정을 선택하면 H가 참일 때 큰 기대손실을 볼 것을 감수해야 하는 반면, A4로 의사결정을 선택하면 적어도 큰 손실을 보지는 않는다는 점이 A4를 선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A4의 ‘최대기대손실’은 0.4로, A3의 0.6보다 작다는 점에서 최대기대손실이 작은 쪽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면 A4를 선택해야 한다.

## II. 논제별 답안 사례와 평가 (인문계)

### 1. [논제 I] 우수 답안 사례

#### 가) 사례 1

(1)은 역사가의 역사에 대한 서술을 객관성과 주관성의 입장에서 파악한다. (1)을 보면, 랑케는 역사 기술의 객관성을, 콜링우드도 주관성을, 카는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의 상호 작용에 관심을 기울였다. (2)의 작가와 문학, (3)의 기자와 언론 보도 사이의 관계는 역사 서술의 관점과 관련하여 사실의 인식과 재구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문학은 그 자체로는 사실이 아니지만 현실보다 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 준다. 이는 기존의 사실에 관념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역사를 창조해낸다는 콜링우드의 견해와 연결된다. 작가가 재구성한 현실이 문학이라는 허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반면 언론 보도는 (1)의 랑케와 카의 관점에 연결된다. ‘사실 그 자체만’ 보도하는 것은 랑케의 관점인데, 이는 자칫하면 특수한 사건을 왜곡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러므로 언론 보도에서 객관성을 중시하되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주관성, 즉 특수한 맥락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이는 객관성과 주관성의 상호작용을 주장한 카의 입장과 연관 된다.

그럼에도 (2)와 (3)은 그 내용이 현실의 단면을 전해준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 문학과 언론에 내포된 ‘사실’은 모두 독자들에게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고 현실을 이해하게 한다. 다만 사실의 인식에 대한 관점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사실의 전달에 있어, 객관성과 주관성 모두 경시되어서는 안 되는 지표이다. 사실의 객관적 전달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면 그 현상 안의 내재적 의미나 가치가 무시될 수 있다. 반대로 주관성의 지나친 강조도 진실한 정보 전달의 왜곡을 낼 수 있다. 한 예로 티베트의 조장 문화를 들 수 있다. 죽은 자의 시체를 새에게 뜯어 먹히게 하는 조장 풍습은 주변 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없다면 야만적인 문화로 왜곡될 수 있다. 한편 지나친 가치개입이 이루어진 사실 전달도 위험성의 소지가 있다. 역사, 문학, 언론 등은 우리의 삶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통로이다. 객관적 사실과 합리적인 가치개입의 조화가 이등이 현실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 1) 이해와 비교

이 글은 (1)의 랑케, 콜링우드, 카의 관점, 그리고 (2)문학, (3)언론의 사례에 대한 이해와 비교를 타당하게 전개하였다. (2)를 통해 (1)에 제시된 랑케의 관점을 읽어낸 부분이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카의 관점을 더불어 고려함으로써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2)와 (3) 사이의 공통점에 주목한 부분은 출제진이

예견한 범주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그 나름의 논리를 마련하고 있어서 그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제시문에 대한 섬세한 읽기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 2) 논술과 구성

사실의 인식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주장을 분명하게 전개하였다. 간결한 사례를 제시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사례에 대한 해석이 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작은 규모의 논설이 되도록 글을 적절하게 구성하였으며 글쓰기의 면에서 기본적인 소양을 비교적 충실히 갖춘 글이라고 평가될 만하다.

### 나) 사례 2

(1)에서는 사실을 객관적인 서술로 보는 관점, 역사가의 재구성으로 보는 관점 그리고 역사가와의 상호작용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나타난다. (2)는 사실을 보는 관점에서 (1)의 두 번째 관점과 맥락을 같이한다. 역사적 사실이란 현재의 관점에서는 그저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역사가는 간접적이고 추론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문학을 통해 진정한 사실을 이해하는 바탕이 된다. 문학은 경험한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상상력이 개입된 것이다. 이 상상을 통한 재구성은 실제 현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헛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역사가가 자신이 가진 과거에 대한 제한된 인식을 바탕으로 재구성하듯이, 문학을 통해 상상력을 가미하여 삶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 진정한 사실인 것이다.

(3)은 (1)의 첫 번째 관점과 사실에 대한 입장과 연관된다. 역사적 사실이란 과학과 같은 객관적 서술을 통해 과거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주장은 (3)이 요구하는 사회의 맥락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언론 보도는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치밀한 관찰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중요시되어야 하는 것은 지배집단 중심의 사회구조의 이해가 아니라 사회 내부 해석 공동체의 특수하고 독자적인 해독 맥락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언론은 특정 현상이 한 사회에 일어난 이유를 묻기 보다는 지배집단 중심의 보편적이라고 믿어지는 선입견을 바탕으로 단순화시켜서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수한 사회적 배경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객관적 사료에 대한 치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의 기술이 가장 균형적인 사실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된다.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 문학과 사실, 언론인과 사회현상의 사실 등의 관계는 서로 구속되어 있지 않는 평등한 관계이다. 카가 제시한 이들 간의 지속적인 대화의 산물이 곧 진정한 사실이다.

### 1) 이해와 비교

각 제시문에 대한 이해가 타당하며 (1)에 대한 (2)와 (3)의 관계에 대한 파악도 적절하여 제시문 사이의 비교가 타당성을 획득하였다. 역사가의 추론과 작가의 상상력 사이에서 진정한 사실에 대한 공통적 지향을 읽어낸 점을 높이 평가할 만하



였다. (3)의 해석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설명 역시 충실하게 이루어졌다. 논제가 요구하는 바를 충실하게 수행한 답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2) 논술과 구성

비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위한 과정을 적절하게 구축하였으며 (1)의 관점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카의 관점에서 자신의 주장을 선명하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에 대한 역사가와 문학가, 언론인의 관계가 구속적이지 않다는 주장은 재고의 여지를 남긴다. 글의 구성이 전체적으로 무난하며 문장도 적절하다.

### 다) 사례 3

문학과 언론 보도에서 객관적 사실의 역할은 보조적이다. 문학이 추구하는 것은 비록 허구일 지라도 진실성이 담긴 작품을 통하여 독자의 감수성과 소통하는 일이다. 언론 보도는 언뜻 보면 완벽한 과학적 객관성만을 추구하는 것처럼 비추어지지만, 보다 총체적인 보도를 위하여 해석 공동체의 구성 원리에 대한 이해도 함께 추구한다.

문학가와 사실의 관계는 카가 말한 역사가와 사실의 관계와 유사하다. 문학가는 사실에 기초한 글로 세상과 소통한다는 점에서 일면 역사가의 성격을 갖는다. 문학가의 작품에 담긴 진실성은 독자에게 삶의 감동과 가치를 발견하도록 한다. 그러한 반응 자체가 또 다른 사실이 되므로 카가 말한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언론 보도는 기본적으로 양케의 객관적 서술과 그 뜻을 같이 한다. 그러나 보도 집단과 보도 대상 집단의 관점이 다른 경우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해석 공동체의 구조와 과정을 탐구할 수도 있다. 이는 완벽한 객관을 부정하는 롤링우드의 관점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관점인 한편, 지나친 주관성 개입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카의 관점과도 연관된다. 결국 언론 보도에서 사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보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완벽한 객관성은 존재하기 힘들다. 완벽한 객관성을 추구한다고 말하는 역사가, 문학가, 언론인이 있다면 그 주장 또한 자신의 주관에 불과하다. 그리고 때로는 사실을 주관적으로 해석해 창작물을 낳는 것이 모든 것을 객관화하려는 노력보다 효과가 크다. 현대사회의 정보 과다는 완벽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개인의 가치에 의해 사실이 재구성됨은 사실이다. 다만 사회에 유통되는 의도적인 거짓과 편파적 의견을 걸러낼 줄 아는 균형적 관점이 필요하다. 이는 합리적 사회소통과 지식 공유를 위한 필수 요건이다.

## 1) 이해와 비교

제시문을 지명하지 않고 답안을 작성한 희귀한 사례이다. 제시문들을 자신의 이해 속에 용해시켜 재구성할 수 있었기에 이런 식의 답안이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

라고 판단된다. 한정된 제시문과 정해진 논제를 전제로 한 글쓰기에서 상투성을 벗어나기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논술 답안들이 상투적인 면모를 다소간 지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답안은 제한된 여건 속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성적인 글을 전개하였다. 제시문을 효과적으로 요약하여 간략한 문장으로 표현하였으며 제시문들 간의 비교도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논술 시험 본연의 취지를 생각하면서 이 답안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 2) 논술과 구성

적절한 논리와 정확한 문장으로 글을 전개하였다. 이 답안은 제시문과의 의존 관계를 끊어도 그 스스로 하나의 독립된 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성의 면에서 완성도가 높다. 객관성에 대해 이 답안이 취한 회의적 태도는 현실적 타당성을 지니며 그에 대한 대안의 제시도 적절하다. 보편성과 독창성의 미덕을 함께 성취한 답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2. [논제 I] 부족 답안 사례

### 가) 사례 1

(1)은 역사적 사실을 다르게 바라보는 관점 세 가지를 소개한다. 랑케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며 이는 엄격한 사료의 분석과 직관적 이해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콜링우드 는 역사적 사실은 역사가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난 사실 그대로 기록될 수 없다고 본다. 카는 사실과 해석이 하나가 우위에 있거나 더 중요한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에 있다고 설명하며 둘 중 하나를 더 중시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2)와 (3)은 봤을 때, (2)는 콜링우드의 관점에, (3)은 카의 관점에 근접하다. (2)는 문학의 허구에 대하여 설명한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주인공과 상황을 실제 일어난 일처럼 서술하여 사람들이 이를 사실처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문학이다. 역사에서 역사가가 자신의 관점에서 서술한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문학에서 작가가 경험한 현실을 토대로 쓴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3)은 카처럼 사실과 해석에 대하여 주장한다. (3)은 언론 보도에 대하여 말하는데 객관성, 즉 사실만을 보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관점과 대조되는 버거와 루크만의 관점을 소개한다. 이들은 사실이 만들어지는 과정 안에 해석 공동체가 있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석 공동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해석이 사실의 우위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국제결혼을 한 조선족 여성들에 대한 언론 보도를 예시로 들며 객관성의 개념만을 강조하여 다양한 결혼 동기들을 경제적 동기 하나로 지나치게 일반화한 경우를 보여준다. 이는 카가 말했던 오류에 부합한다. (2)와 (3)의 내용 중에는 랑케가 소개한 보편적 의미의 사실이 나타난다. (2)에서는 경험 현실, (3)에서는 언론 보도의 객관성이라는 개념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2)는 콜링우드의 관점을 문학에 의해 설명하며 랑케의 설명에 반대하는 주장을 했고 (3)은 카의 관점을 언론보도에 적절하게 적용했다.

### 1) 이해와 비교

이 답안은 제시문을 제대로 이해하였으며 제시문들 간의 관계도 적절히 파악하여 비교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 답안은 이해를 표현하고 비교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획득하지 못하였다. 제한된 분량 안에서 이해와 비교를 수행하자면 글 안에 제시문의 논지가 효과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논지들 사이에서 비교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답안은 그런 점에서 비효율적이다.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 하였으며 제시문의 세부마저 답안에 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제시문들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말았다.

### 2) 논술과 구성

답안의 대부분을 이해와 비교에 사용한 결과 자신의 주장을 표현할 여지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논제에 표현된 비중만큼 자신의 주장이 답안에 전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답안은 그 부분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 글의 구성이 논제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였으며 서술이 단조롭다. 문장은 비교적 정확한 편이다.

#### 나) 사례 2

(1)에서는 ‘사실’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보여준다. 우선 과거에 존재한 사실 그 자체, 즉 당시 상황을 복원해야 한다는 랑케의 의견인데, 그는 이것이 사료 비판과 감정이입을 통한 직관적인 이해를 통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콜링우드도 과거는 역사가에 의해 구성되고 의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현재의 입장에서 역사는 관념적이고 주관적이다. 한편 카는 앞선 두 주장을 모두 부인하면 역사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상호작용이며 대화라고 하였다.

(2)는 문학이 경험 현실을 상상력을 통해 재구성, 재창조한 것이라 한다. 이것은 분명히 허구이지만 독자들은 소설 속의 내용을 현실 속의 어딘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실이라고 여긴다. 독자들은 작품이 지닌 호소력 속에서 사실 이상의 진실을 발견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다.

(3)은 언론이 사실을 보도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버거와 루크만에 의하면 객관성에 앞서서 그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그 보도의 내용은 다시 사회에 영향을 준다. 이처럼 언론은 사회적 맥락에서 보도하고 그 내용은 다시 사회에 영향을 주는 끊임없는 상호적 관계이다.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실재하는 사실을 볼 때에는 사회 공동체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재창조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체계의 구조화 과정을 통해 파악해야 한다.

### 1) 이해와 비교

이 답안은 논제가 요구하는 바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였다. 논제에서 요구하는 제시문에 대한 이해는 각 제시문의 핵심적인 논지로 표현되어야 하며 비교는

그 논지들 사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답안은 각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 제시하는 수준에서 멈추었다. 아울러 각 제시문에 대한 이해도 부정확하다.

## 2) 논술과 구성

이 답안은 제시문을 순차로 요약하는 데 그치고 있어서 제시문들 사이의 비교는 물론이려니와 논제가 요구하는 자신의 주장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였다. 한편의 온전한 글을 구성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으며 문장도 부정확하다.

### 다) 사례 3

역사학자들의 임무는 역사를 밝히는 것이다. 즉 과거의 사실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추구하는 사실이 과연 실재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것인지 아니면 역사가의 주관의 산물인지 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소설과 신문을 비교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소설은 작가의 상상력을 소재로 한 주관적인 매체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허구의 세계인 소설을 읽고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감동하며 공감한다. 많은 독자들에게 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은 소설에는 작가만의 허구의 세계만이 아닌 사실이라 여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말이다. 그것은 작가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상상의 사실같은 세계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소설은 이를 바탕으로 사실성을 획득한다. 이에 비해 신문이란 매체는 사실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 매체이다. 그런데 신문은 단지 일어나는 사건을 전달함으로써 사실성을 획득할 수 없다. 단편적 사건전달은 오히려 거짓된 정보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문은 지배집단이 해석공동체를 염두해야 한다. 즉 신문은 주체가 사실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사실성을 획득한다. 소설은 객관적인 현실을 바탕으로 작가의 주관을 통해 사실성을 획득하고 신문은 기자의 주관을 바탕으로 객관적 현실을 이해함으로써 사실성을 얻는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실이라는 것이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한 객관적인 것도 아니며, 인간이란 한계 때문에 주관적이기만 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1) 이해와 비교

우수 답안의 사례 3처럼 이 답안도 제시문을 지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수 답안의 사례 3과 판이하다. 우선 제시문의 중심 주제인 사실의 인식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교 서술하지 않음으로써 논제가 요구하는 바에 부합하지 못하였다. 답안에 서술된 내용 중에는 제시문과 무관한 내용도 들어 있다. 따라서 이 답안은 겉보기에 개성적이라고 오판될 수 있지만 엄밀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오류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수 답안의 사례 3과 의견상 유사해 보이는 이 답안을 부족 답안의 사례로 제시함으로써 제시문을 지명하지 않는 유형의 답안이 상투화되는 것을 경계하고자 한다.

## 2) 논술과 구성

이 답안은 제시문을 단순히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문맥을 따라 논리를 구축하지 못하였으며 문장이 부정확하다. 제시문을 부정확하게 이해한 탓에 자신의 주장을 타당하게 개진하지 못하였다. 논술 답안도 한 편의 글로서 완성도가 높도록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답안은 그러한 점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 3. [논제 II] 우수 답안 사례

## 가) II-1

K가 참일 경우, A1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기대손실이 1, A2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기대손실이 0, A3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기대손실이 0.3이고, A4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기대손실이 0.4이다. 따라서 기대손실의 크기에 따라 A2, A3, A4, A1의 순서로 의사결정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특정 사례를 들어 제시한대로, 각 의사결정방법에 대한 기대손실을 정확하게 구하였으며, 기대손실이 작은 것부터 의사결정방법을 선택하였다.

## 나) II-2

H가 참일 때와 K가 참일 때를 나누어 기대손실을 구해야 한다. 각 경우 기대손실 즉 오류를 범할 확률을 구하면 다음 표와 같다.

	A1	A2	A3	A4
H가 참일 때	0	1	0.6	0.4
K가 참일 때	1	0	0.3	0.4

A3을 선택하는 경우 기대손실은 최대 0.6이고 A4를 선택하는 경우 기대손실은 최대 0.4이다. 따라서, 기대손실이 최대가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A3과 A4의 방법 중 A4를 선택해야한다.

A3의 최대기대손실은 0.6인 반면 A4의 최대기대손실은 0.4이므로, 최대기대손실을 의사결정방법 선택기준으로 삼으면 A4를 선택하게 된다.

#### 4. [논제 II] 부족 답안 사례

##### 가) II-1

K가 참인 경우, A3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기대손실이 03, A4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기대손실이 04이다. 따라서, 기대손실의 크기에 따라 A2, A3, A4, A1의 순서로 의사 결정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의사결정방법 A1과 A2에 대한 기대손실을 구하지 않고 의사결정방법의 선택 순서를 제시하였다.

##### 나) II-2

H가 참일 때와 K가 참일 때를 나누어 기대손실을 구해야 한다. 각 경우 기대손실 즉 오류를 범할 확률을 구하면 다음 표와 같다.

	A1	A2	A3	A4
H가 참일 때	0	1	06	04
K가 참일 때	1	0	03	04

H가 참일 때 A4의 기대손실이 A3의 그것보다 작다. 따라서 A4를 선택하려면, ‘H가 참이다’가 그 근거이다.

H와 K가 중 어느 것이 참인지 모르는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이므로 ‘H가 참이다’라는 것은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 다) II-2

H가 참일 때와 K가 참일 때를 나누어 기대손실을 구해야 한다. 각 경우 기대손실 즉 오류를 범할 확률을 구하면 다음 표와 같다.

	A1	A2	A3	A4
H가 참일 때	0	1	06	04
K가 참일 때	1	0	03	04

따라서 A3의 경우 기대손실은  $06 \times 03 = 0.18$  A4의 경우는 기대손실이  $04 \times 04 = 0.16$ 이므로 A4의 기대손실이 A3의 기대손실보다 002만큼 낮으므로 A4를 선택한다.

어떤 의사결정방법에 대하여, H와 K가 참인 상태에서의 기대손실을 곱한 것은 의미가 없으며 선택의 기준으로 부적절하다.

## 라) II-2

H가 참일 때와 K가 참일 때를 나누어 기대손실을 구해야 한다. 각 경우 기대손실 즉 오류를 범할 확률을 구하면 다음 표와 같다.

	A1	A2	A3	A4
H가 참일 때	0	1	0.6	0.4
K가 참일 때	1	0	0.3	0.4

따라서 A3의 경우 기대손실은  $0.6+0.3=0.9$  A4의 경우는 기대손실이  $0.4+0.4=0.8$ 이므로 A4의 기대손실이 A3의 기대손실보다 0.1만큼 낮으므로 A4를 선택한다.

어떤 의사결정방법에 대하여, H와 K가 참인 상태에서의 기대손실을 단순히 더한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은 것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 자 연 계







# 논 술

## (자연계)

**※ 주의사항 : 논제 1은 필수로 풀고 논제 2, 3, 4, 5 중 한 문제를 선택해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 논제 1 : 수학 (필수)

(가)

그림 1과 같이 좌표공간에서 두 평면  $z=a$ 와  $z=b$  사이에 있는 입체  $A$ 를 평면  $z=z_0$ 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가  $S(z_0)$ 일 때,  $A$ 의 부피는

$$V_A = \int_a^b S(z) dz$$

이다. 그림 2에서 입체  $B$ 는 그림 1의 입체  $A$ 를  $z$ 축 방향으로  $k$ 배 늘여서 얻어진 다. 입체  $B$ 의 부피를  $V_B$ 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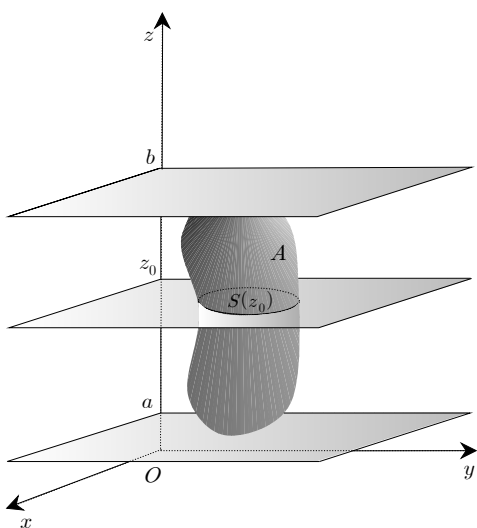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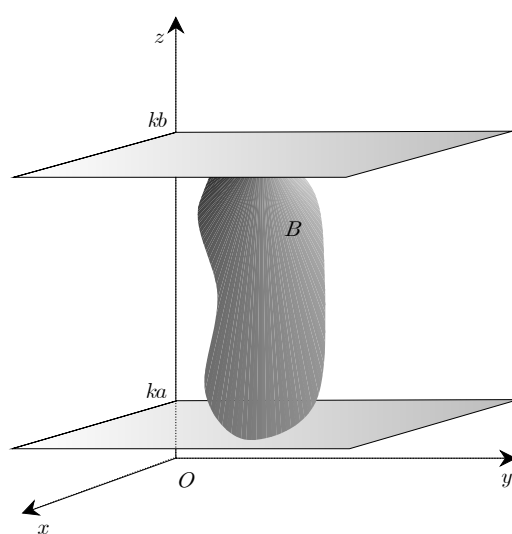


그림 2.

(나)

그림 3과 같이 반지름이 1인 구가 평면  $\alpha$ 와 점  $O$ 에서 접한다. 점  $O$ 를 포함하고 평면  $\alpha$ 와 수직이 아닌 평면  $\beta$ 가 평면  $\alpha$ 와 이루는 예각을  $\phi$ 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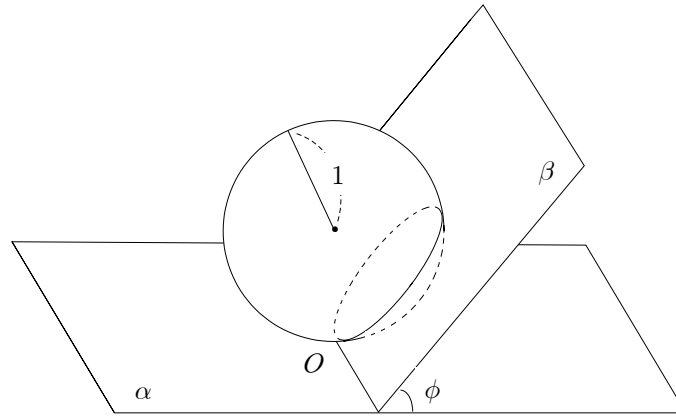


그림 3.

(다)

좌표공간에서  $zx$  평면 위의 타원  $x^2 + \frac{(z-2)^2}{4} = 1$ 을  $z$ 축 둘레로 회전하여 얻어진 곡면으로 둘러싸인 입체를  $C$ 라 한다. 원점을 포함하고  $zx$  평면과 수직이 아닌 평면  $\gamma$ 가  $zx$  평면과 이루는 예각을  $\theta$ 라 한다.

문제 1 (필수)

- (a) 치환적분을 이용하여 제시문 (가)에서  $V_A$ 와  $V_B$ 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 (b) 제시문 (나)에서 평면  $\beta$ 에 의해 잘린 구의 두 영역 중 작은 영역의 부피  $U(\phi)$ 를 구하시오.
- (c) 제시문 (다)에서 평면  $\gamma$ 에 의해 나뉘지는  $C$ 의 두 영역 중 작은 영역의 부피를  $W(\theta)$ 라 하자. 극한

$$\lim_{\theta \rightarrow 0^+} \theta^a W(\theta)$$

가 수렴할 때, 실수  $a$ 와 극한값을 구하시오.

문제 2 : 물리 (선택)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열에너지 등이 있으며, 한 형태의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이 가능하고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고립된 계에서 에너지의 합은 보존된다. 그림 1과 같이 질량이  $M$ 인 물체가 초기속력  $v$ 로 미끄럼 운동을 하여 반경이  $R$ 인 원형 틀을 따라 반시계 방향으로 원운동을 한 후  $x=d$ 에 위치한 벽면과 완전 탄성 충돌을 하는 운동을 생각하자.  $x=0$ 인 지점의 왼쪽 영역에서는 물체와 표면 사이의 마찰력이 없고, 오른쪽 영역에서는 물체와 표면 사이의 운동 마찰계수가  $\mu_k$ 로 주어진다. 물체는 벽면과 완전 탄성 충돌 후 반경  $R$ 인 원형 틀을 따라 시계방향으로 원운동 한다. 물체에 가해지는 중력 가속도는  $g$ 로 일정하고, 물체는 원형 틀에서 떨어지지 않고 최대 한 번 회전한 후 원형 틀을 빠져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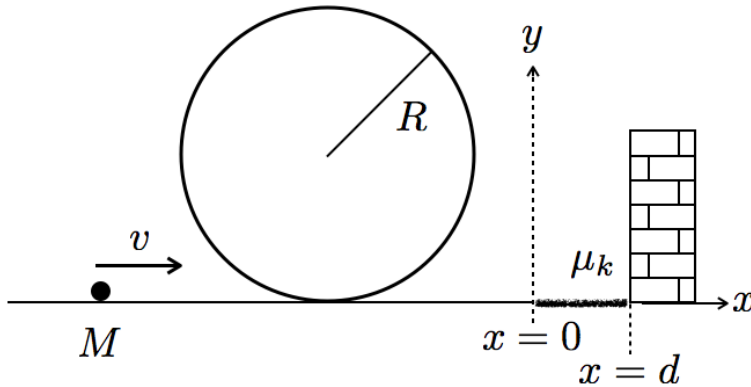


그림 1. 질량  $M$ 인 물체가 원형 틀을 따라 한 바퀴 회전 후 벽면과 완전 탄성 충돌함

문제 2 (선택)

- (a) 초기속력  $v$ 를 가진 물체가 반경  $R$ 인 원형 틀을 반시계 방향으로 떨어지지 않고 한 바퀴를 회전할 때 초기속력의 최솟값  $v_{\min}$ 을 설명하시오.
- (b) 물체가 벽면과 완전 탄성 충돌 후 반경  $R$ 인 원형 틀을 시계방향으로 돌아 최고 점에서 속력이 0이 되게 하는 초기속력  $v_c$ 를 구하시오.
- (c) 물체의 초기속력  $v$ 가 (a)와 (b)에서 구한 초기속력 사이의 값(즉,  $v_{\min} < v < v_c$ )으로 주어질 때 물체는 원형 틀과 벽면 사이를 왕복 운동한다. 물체가  $n$ 번째 왕복 운동을 할 때 원형 틀로 올라간 높이  $h_n$ 을 구하시오.
- (d) (c)에서  $g = 10 \text{ m/s}^2$ ,  $\mu_k = 0.1$ ,  $R = 2 \text{ m}$ ,  $d = 1 \text{ m}$ 로 주어질 때 물체는 원형 틀과 벽면 사이를 최대 몇 번 왕복 운동하는지 논술하시오.

문제 3 : 화학 (선택)

(가)

나노입자란 수천에서 수십만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1 nm(나노미터,  $1 \text{ nm} = 10^{-9} \text{ m}$ )부터 100 nm까지의 지름을 가지는 입자를 일컫는다. 나노입자는 자신의 형태 및 조성에는 변화가 없으나 화합물의 변환 반응을 촉진시키는 촉매로서의 역할 등 다양한 응용성을 보여준다. 나노입자는 입자의 표면에 존재하는 표면원자와 입자의 내부에 존재하는 내부원자로 구성된다. 백금(Pt) 나노입자는 에텐( $\text{CH}_2\text{CH}_2$ )과 수소 ( $\text{H}_2$ ) 간의 반응에 촉매로서 작용하여 에테인( $\text{CH}_3\text{CH}_3$ )을 형성할 수 있는데, 아래 그림 1과 같이 백금 나노입자의 표면원자들은 에텐과 수소의 흡착 및 이들의 변환에 관여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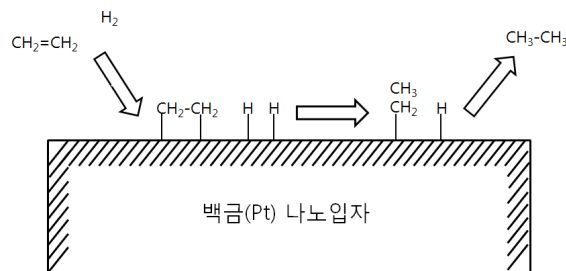


그림 1.

(나)

물방울은 무중력 상태의 공간에서 완벽한 구형을 이루는데, 이는 물방울 표면에 존재하는 물 분자의 개수를 최소화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물방울의 표면에 위치한 한 개의 물 분자보다 물방울의 내부에 존재하는 한 개의 물 분자가 이룰 수 있는 수소결합의 개수가 훨씬 많으므로, 물방울 내부 물 분자의 에너지가 물방울 표면 물 분자보다 더욱 안정하기 때문이다.

(다)

백금 나노입자는 면심입방격자(face-centered cubic) 결정구조를 가진다. 백금 나노입자는 결정을 자르는 방향에 따라 아래와 같은 다양한 표면 원자 배치를 지니게 된다 (그림 2~4 참조).

그림 2. 면심입방격자의 절단 (절단 방향은 굵은 점선으로 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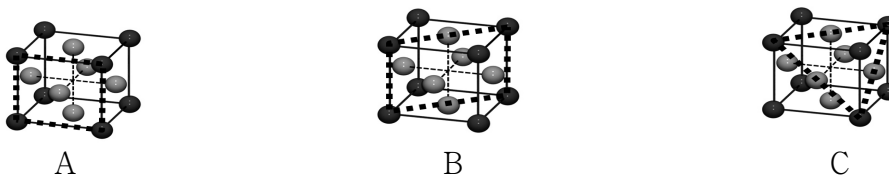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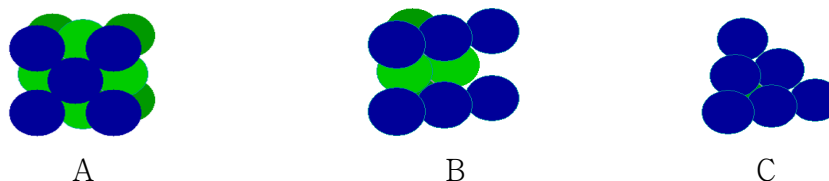


그림 3. 얻어지는 표면 원자 (진하게 표시된 원자들) 배치의 확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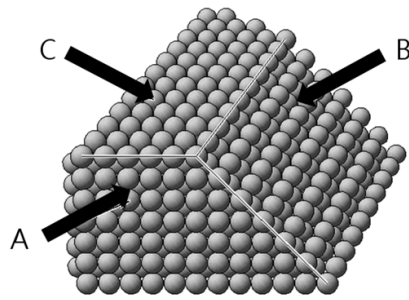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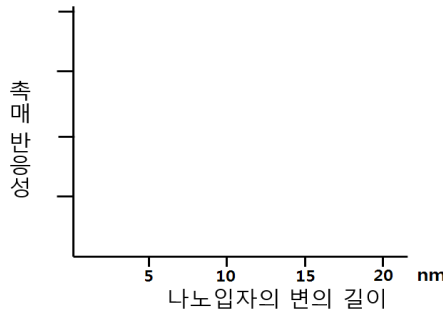
그림 4. 나노입자의 다양한 면

(라)

산(acid)에 의해 촉진되는 금속의 부식반응(corrosion)은 전형적인 산화-환원 반응이다. 이러한 부식 반응은 금속 내부보다 금속의 표면에서 먼저 일어나게 된다.

문제 3 (선택)

- (a) 나노촉매의 반응성은 화학반응의 생성물의 양에 비례한다. 한 변의 길이가 1 cm인 정육면체 형태를 가지는 세 개의 백금 덩어리를 잘게 쪼개어 각각 한 변의 길이가 5 nm, 10 nm, 20 nm로 균일한 크기의 정육면체 나노입자들로 이루어진 세 종류의 나노촉매 가루를 만들었다. 이들 나노촉매의 반응성과 나노촉매 입자 크기와의 상관관계를 아래의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고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시오(제시문 (가) 참조). 나노입자들은 서로 접합되어 있지 않으며 나노입자의 모든 면은 노출되어 있다고 가정하시오.



- (b) 나노입자의 표면 원자의 에너지는 인접한 원자의 개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촉매 표면원자의 에너지 상태가 불안정할수록 촉매의 반응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제시문 (나)에 근거하여 제시문 (다)의 A, B, C 표면구조 중 촉매 반응성이 가장 높은 구조를 예측하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 (c) 화학자들은 정육면체나 구형의 나노입자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와 표면 원자배치를 지니는 촉매 나노입자를 형성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화학자들이 촉매 나노입자의 반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전략을 두 가지 이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시오.
- (d) 금( $\text{Au}^{3+}$ ) 이온 용액에 첨가된 은(Ag) 나노입자는 용액속의 금 이온과 반응을 하여 새로운 형태와 조성을 지니는 나노입자를 형성할 수 있다. 이 산화-환원 반응의 알짜 반응식을 쓰고 표준전지전위를 구하시오. 제시문 (가)와 (라)를 참조하여, 얻어지는 새로운 나노입자의 형태와 조성을 예측하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 문제 4 : 생물 (선택)

### (가)

종 분화(speciation)는 단일 종(species)의 생명체가 둘 이상의 종으로 나뉘는 것을 말한다. 그 과정은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축적되어 생긴 유전적 차이에서 시작하여 자연 선택을 통해 완결된다. 종의 개념을 체계화한 린네가 제안한 개념과 달리 현대 생물학에서의 종의 개념은 생식적으로 독립된 상태를 말한다.

하나의 종에 속하는 생명체들은 비슷한 형질과 생활형을 가지며, 자손의 생식 능력도 정상이다. 그러나 두 집단이 유성생식을 통해 더 이상 유전자를 서로 교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이 집단들은 생식적으로 격리되었다고 말한다. 이렇게 격리된 두 집단의 구성원은 짝짓기를 하더라도 불임성의 후손이 생기기 때문에 두 집단사이의 유전 정보의 교환은 차단된다. 종 분화를 설명하는 모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보편적인 모델은 이소적 종 분화(allopatric speciation) 모델이다. 종 분화가 많이 일어날수록 종 다양성(diversity)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 (나)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세포이다. 생물 종에 상관없이 모든 세포의 기본 구조와 기능은 거의 같다. 특히 세균(bacteria)과 원생생물(protist)은 작은 단세포 생명체라는 특성은 같지만 서로 다른 분류군에 속한다. 원생생물은 세균에 비해 더 정교한 세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화적으로 더 고등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진핵 생명체에서 구획을 나누어 서로 다른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은 다양한 생명 활동을 하는데 효율적이다. 세포내에 구획을 나누는 것은 진화 과정에서 세포 소기관의 형성과 직결된다. 이 세포 소기관들은 분업화된 기능(예: 에너지의 전환, 물질의 합성과 수송 및 저장, 유전 정보의 보관)을 담당한다. 이렇듯 세포내에서 각각의 기능을 담당할 지역을 생체막으로 둘러싸아 구획화하는 것은 진핵생물체가 가진 핵심적 기능이며 자연 선택될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

### (다)

딕티오스텔리움(*Dictyostellium*)은 세균을 먹이로 하는 세균성 점균류이다(그림 1). 이 생명체는 점액 아메바형의 개체로 주로 생활한다. 먹이가 풍족한 환경 하에서 딕티오스텔리움은 독립된 세포로 살아간다. 그러나 먹이가 부족하게 되면 아메바형 여러 개가 모여서 이동체라는 덩어리를 만든다. 끈적한 벌레의 모양을 한 이동체는 기어 다닐 수 있다. 이 이동체는 다핵성 거대 세포질인 변형체성 점균류와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각 세포가 자신의 원형질막을 가지고 각자의 개별성을 유지하는 점이 다르다. 이동체는 기어 다니다가 정지한 다음, 자실체를 만들고 포자를 형성한다. 떨어진 포자는 환경이 좋아지면 발아하여 점액 아메바형이 된다. 놀라운 사실은 딕티오스텔리움이 이동 중에 발견한 세균을 모두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를 자실체 안에 가지고 있다가 포자를 뿌릴 때 함께 뿌린다는 것이다. 이 행동은 포자가 뿌려진 자리에 세균 군집을 파종하는 효과를 갖으며, 그 자리에 먹이로 사용할 세균이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등 생명체에서 이런 '원시 농업'적 행동이 발견되는 것은 진화의 과정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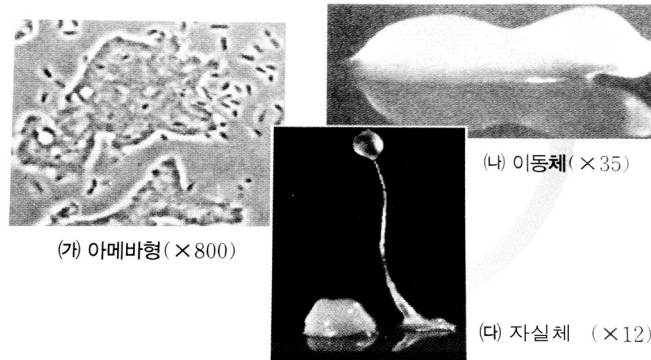


그림 1. 세포성 점균류인 디티오스텔리움의 생활사 (생물교과서에서 발췌)

(라)

재조합 DNA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게 된다(그림 2). 생체 내에 미량으로 존재하는 DNA를 DNA 중합효소를 이용한 PCR 방법으로 증폭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오차 없이 상보적 DNA 절편을 복제하기 위해 정확도가 높은 중합효소를 사용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정확도가 낮은 효소를 이용하기도 한다. 증폭된 DNA와 운반체(벡터)를 제한효소를 이용하여 특정부위를 절단한 후에 증폭된 유전자를 DNA 연결효소(리가아제)를 이용하여 플라스미드나 박테리오파지(세균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와 같은 운반체에 삽입한다. 구축된 재조합 DNA를 대장균과 같은 숙주에 도입하여 유전자를 복제하거나 단백질 발현시키는데 사용한다. 이때 재조합된 단일 DNA 조각의 증폭군을 DNA 클론이라고 하며, 다수의 클론의 집합을 라이브러리라고 한다. DNA 라이브러리는 생명체가 보이는 다양성의 한 형태로 항체를 만드는 인체 DNA도 이러한 특징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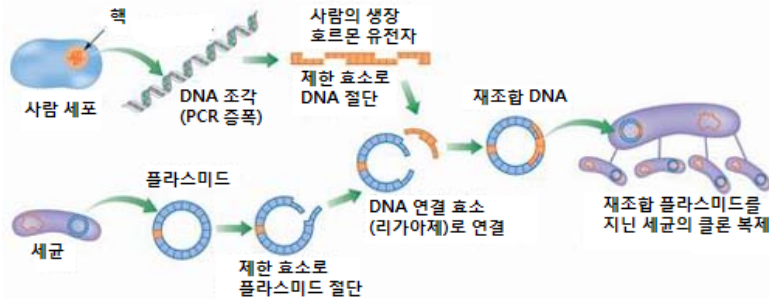


그림 2. 재조합 DNA를 만드는 과정 (생물교과서에서 발췌)

(마)

생명과학자들은 생명체의 다양성을 이용하여 유용한 생명공학 기법을 개발하기도 한다. 일부 박테리오파지는 표면에 단백질을 발현하는데, 인간이 그 단백질의 특정부위에 의도적으로 다양성(diversity)을 도입할 수가 있다. 즉 다양한 DNA 절편 라이브러리를 그 발현될 파지 유전자의 중간에 재조합 DNA 기법을 이용하여 삽입한다. 이 파지바이러스들을 세균에 감염시키면 표면에 수많은 돌연변이 단백질들이 붙어있는 파지들이 만들어진다. 이후 인간이 원하는 표적단백질과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성질을 가지는 표면단백질을 소유한 파지를 선별해 내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치게 된다. 최종적으로 선별된 파지들에 들어있는 DNA 절편들의 염기서열을 분석하면 궁극적으로 표적단백질과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펩티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을 파지 디스플레이(phage display)라고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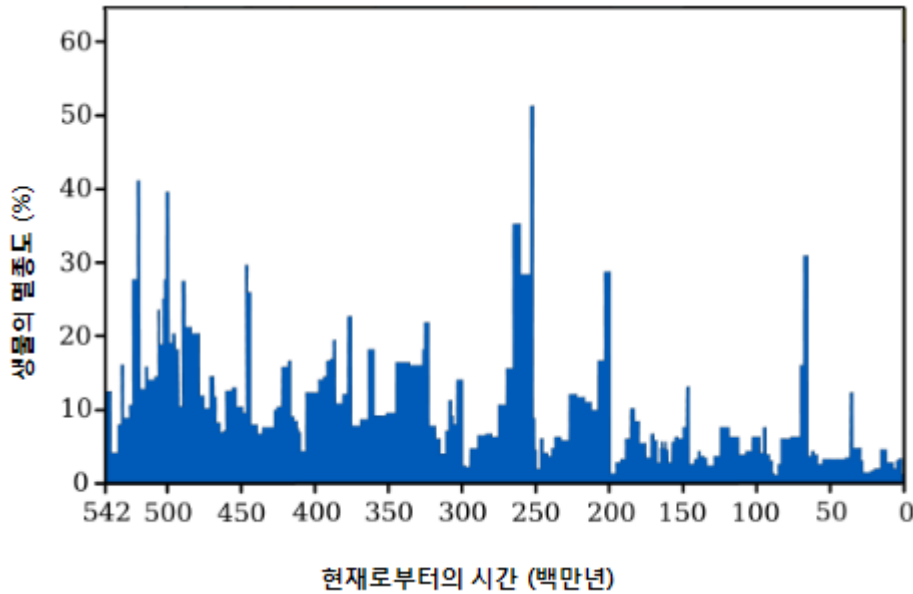
#### 문제 4 (선택)

- (a)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읽고 개체 수준과 세포 수준에서 진화의 원동력이 지닌 유사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b) 제시문 (다)의 디티오스텔리움에 보이는 재조직화 현상은 린네의 종 분류 체계 대신 현대 분류 체계를 적용하게 된 사례이다. 어떤 측면에서 린네의 분류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지 설명하시오.
- (c)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를 읽고 디티오스텔리움에 조직화를 통해 보이는 전략적 제휴가 진화생물학에서 어떤 의문을 던지는지 기술하고, 이 '원시 농업'적 행동과 유사한 사례를 이용하여 진화과정에서의 이익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d) 인간이 시험관내에서 원하는 유전자 산물을 의도적으로 얻어내는 방법을 방향적 진화 (directed evolution)이라고 한다. 제시문 (라)와 제시문 (마)를 근거로 방향적 진화 실험방법을 디자인해 보고, 방향적 진화가 생명체의 진화에 비해 갖는 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e) 인체 면역체계의 항원-항체 반응도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성 및 선택성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제시문 (마)의 파지 디스플레이의 기법과 항원-항체 반응간의 유사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문제 5 : 지구과학 (선택)

(가)

생물의 대규모 멸종사건에 의한 종다양성의 급격한 감소가 지구 역사상 여러 번 일어났다. 그림 1은 지질시대 별 생물(속 단위)의 멸종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멸종사건은 지층에 남아있는 여러 기록을 종합함으로써 알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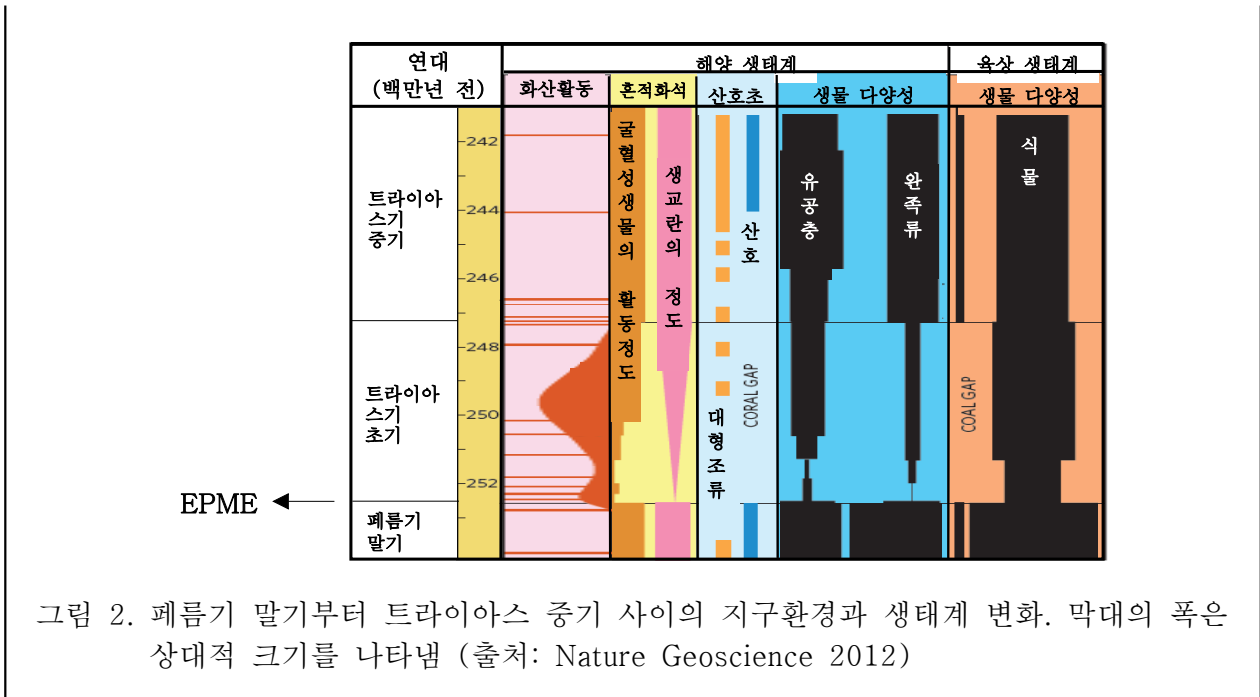


(나)

약 2억5천2백만 년 전인 고생대 페름기와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경계 시기에서 일어난 대규모 멸종은 지구 역사상 최대의 규모였는데, 이를 "End-Permian Mass Extinction(EPME)"이라 부른다. 이때, 해양 동물종의 약 80-96%와 육지 무척추 동물종의 약 70%가 갑자기 멸종하였다.

(다)

최근 지구과학자들은 EPME의 원인과 결과 및 멸종 사건 이후의 지구생태계 회복과정을 밝히기 위하여 고생대~중생대 초에 생성된 퇴적암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중국 남부 메이산 지역에서의 자세한 연구결과가 최근에 발표되었는데, 주요 연구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문제 5 (선택)

- (a) EPME를 야기한 중요한 원인은 초대륙 판게아에서의 대규모 화산활동, 특히 시베리아에서의 맨틀의 용융에서 기인한 대규모 현무암질 화산활동(mega plume)으로 해석된다. 시베리아 화산활동은 대량의 화산가스를 배출하고 인접한 석탄층에 열변성을 야기하여 대기 조성을 급격히 변화시켰으므로, 결국은 수권의 변화를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대기와 수권 환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 (b) 그림 2에서 보면, EPME 사건 시 종다양성의 급격한 감소가 뚜렷하다. 특히, 해양환경에서는 해저에서 굴을 파고 사는(굴형성) 생물들의 흔적화석이 갑자기 줄어들며, 석회질 조류, 산호, 유공충 등의 멸종이 뚜렷하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를 해양 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 (c) 또한, 그림 2는 EPME 사건 이후에 육지 식물종의 다양성도 급격히 감소하였고, 특히 이 때 형성된 석탄층이 없음(coal gap)을 보여준다. 이러한 육지 식물상의 변화가 일어난 이유를 논리적으로 추론하시오.
- (d) 대규모 멸종사건에서 운이 좋게도 살아남은 일부 생물들은 초기에는 종다양성과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회복되어 중생대 초기의 우점종이 되었다. 이러한 해양 무척추동물의 예를 하나 드시오.
- (e) EPME 사건은 오늘날 전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구온난화가 초래할 지구생태계 변화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EPME 사건과 지구온난화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시사점을 설명하시오.

## 출제의도와 문제해설 (자연계)

### 1. 2013학년도 자연계 논술의 목표와 기본방향

2013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모집 일반전형은 고려대학교 전체 전형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며 논술의 비중이 매우 크다. 따라서 수시 일반전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논술 유형과 기본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려대학교 논술본부는 2013학년도 자연계 논술 출제에 대한 아래와 같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모의논술고사를 실시하였다.

- 고교 과학교육 및 공교육의 정상화
- 수리 논술 및 과학 논술 문항들의 유형별 분리
- 각 과학과목의 심층 사고력 측정

2013년 논술자료집은 평가에 참가한 학생들의 답안을 토대로 모의논술고사의 출제의도와 평가기준을 밝힘으로써 수시 논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지난해 고려대학교 자연계 논술에선 수리 문항을 필수로 하고 과학 문항 중 두 문항을 선택하는 유형이었으나 2013학년도에는 모집 단위별로 정해진 과학 문항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바뀌었다. 따라서 예년과 달리 2013학년도 논술에선 풀어야 할 문항 수가 수학을 포함하여 두 개로 줄어든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시험시간 부족에 따른 심층 사고의 어려움과 고교 과학 II 교과목 선택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가급적 줄이고자 시도되었다.

자연계 논술은 학교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대부분의 제시문을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직접 발췌하거나 적절하게 변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제시문과 논제에 사용된 소재와 개념은 이미 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해 익숙하게 다루어지는 것들이며 충실한 학교교육을 받은 학생이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로 선택하였다. 과학교과내용의 출제범위는 과학 선택과목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해 가급적 과학 I을 위주로 출제하되 과학 II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도 제시문에서 충분히 설명하여 비록 해당 과학 II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출제 의도와 논제 해설, 예시 답안 및 평가

### 가) 논제 1

#### 1) 출제 의도

본 논제에서는 함수의 극한, 미분, 적분, 공간도형 등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하나의 논제를 통해 교과과정의 모든 주제들을 다룰 수는 없지만 중요한 주제들을 가능한 한 많이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세 논제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부여하여 앞의 논제를 해결하지 못한 학생들도 다음 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복잡한 계산을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는 직관과 아이디어를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수학적 논리를 통해서 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한 계산 실수로 인하여 감점이 되는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 2) 논제 해설 및 평가

##### (가) 논제 1 (a)

##### (1) 논제 해설

입체를 한 방향으로  $k$ 배 늘이면 부피가  $k$ 배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명백하다. 이와 같이 직관적으로 명백한 특성을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학습한 미적분 이론을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좌표공간에 있는 입체를 하나의 축을 따라 늘이는 것은 간단한 선형 변환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의 축을 따라 늘여서 얻어진 입체의 단면의 면적을 원래 입체의 단면의 면적으로 표현한 후 치환적분을 이용하면 입체를 한 방향으로  $k$ 배 늘였을 때 입체의 부피가  $k$ 배 늘어남을 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2) 예시 답안

입체  $B$ 를 평면  $z = t$ 로 자른 단면의 넓이를  $\tilde{S}(t)$ 라 하면

$$\tilde{S}(t) = S\left(\frac{t}{k}\right)$$

이다. 따라서 입체  $B$ 의 부피  $V_B$ 는

$$V_B = \int_{ka}^{kb} \tilde{S}(t) dt = \int_{ka}^{kb} S\left(\frac{t}{k}\right) dt$$

이다.  $t = kz$ 로 치환하면

$$V_B = k \int_a^b S(z) dz = k V_A$$

이다.

(3) 평가

늘여서 얻어진 입체의 단면과 원래 입체의 단면의 관계를 잘 표현한 수험생들은 대부분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였다. 잘못된 표현을 얻은 수험생들은 직관과 다른 잘못된 결론을 얻었다. 많은 수험생들이 단면의 넓이에 대한 잘못된 표현식을 얻은 후 직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다시 잘못된 계산 전개를 하기도 했다.

(나) 문제 1 (b)

(1) 문제 해설

본 문제에서는 공간도형에 대한 이해와 적분을 이용하여 입체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공간도형의 좌표축을 적절히 선택하면 입체의 부피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적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좌표축을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지, 부피 계산을 위해 적분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예시 답안

$U(\phi)$ 는 위 그림에서 빗금 친 영역을  $x$ 축 둘레로 회전하여 얻어진 입체의 부피이다. 따라서,

$$\begin{aligned}
 U(\phi) &= \pi \int_{\cos \phi}^1 (\sqrt{1-x^2})^2 dx \\
 &= \pi \int_{\cos \phi}^1 (1-x^2) dx \\
 &= \pi \left[ x - \frac{1}{3}x^3 \right]_{\cos \phi}^1 \\
 &= \pi \left( \frac{2}{3} - \cos \phi + \frac{1}{3} \cos^3 \phi \right).
 \end{aligned}$$

이다.

## (3) 평가

좌표축을 적절히 선택하지 못해서 입체의 부피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수험생들도 상당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좌표축을 적절히 선택하고 입체의 부피 계산을 위해 적분을 올바르게 적용하였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적분을 이용하여 입체의 부피 계산을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적절히 적용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 (다) 문제 1 (c)

## (1) 문제 해설

본 문제에서는 어떤 함수가 만족하는 성질을 찾아내고 이 성질을 이용하여 그 함수와 관련된 극한값을 구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했다.  $W(\theta)$ 라는 함수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만으로는 함수값을 알 수 없지만  $\theta$ 가 0으로 갈 때 함수의 극한값은 항상 입체  $C$ 의 부피의 반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찰이 본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된다.

## (2) 예시 답안

입체  $C$ 는 반지름이 1인 구를 한 방향으로 2배 늘여서 얻어진다. 따라서, (a)의 결과에 의해  $C$ 의 부피는  $2 \times \frac{4}{3}\pi = \frac{8}{3}\pi$ 이다. 또한  $\theta$ 가 0으로 갈 때, 평면  $\gamma$ 에 의해 나누어지는  $C$ 의 영역 중 작은 영역의 부피  $W(\theta)$ 는  $C$ 의 부피의 절반으로 수렴하므로

$$\lim_{\theta \rightarrow 0^+} W(\theta) = \frac{1}{2} \times \frac{8}{3}\pi = \frac{4}{3}\pi$$

이다. 따라서  $\lim_{\theta \rightarrow 0^+} \theta^a W(\theta)$ 가 수렴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a \geq 0$ 이다.  $a = 0$ 인 경우와  $a > 0$ 인 경우로 나누

어서  $\lim_{\theta \rightarrow 0^+} \theta^a W(\theta)$ 의 극한값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i) \ a = 0 \text{ 일 때, } \lim_{\theta \rightarrow 0^+} \theta^a W(\theta) = \frac{4}{3}\pi.$$

$$(ii) \ a > 0 \text{ 일 때, } \lim_{\theta \rightarrow 0^+} \theta^a W(\theta) = 0.$$

## (3) 평가

평면  $\gamma$ 가  $zx$ 평면과 만나는 각의 조건은  $\theta$ 로 정해져 있지만 어떻게 만나는지는 주어지지 않으므로 함수값  $W(\theta)$ 는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함수  $W(\theta)$ 의 특성 중 문제에서 주어진 가정들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성질만을 이용하여 결과를 얻어야 한다. 문제에서 주어진 가정만으로는  $W(\theta)$ 의 값을

구체적으로 구할 수 없으므로,  $w(\theta)$ 의 값을 구체적으로 구하려고 한 경우에는 좋은 답안을 얻을 수 없다. 논제에서 구체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여 결과를 얻은 경우에는 감점의 요인이 되었다.

## 나) 논제 2

### 1) 출제의도

논제 2는 물리 I의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보존, 에너지 변환에 관한 이해를 시험하고 있다. 논제 2의 a)에서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중력에 의해 위치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을 이용하여 물체가 원형 튜브의 최고높이에 다다르기 위한 초기속력을 묻고 있다. 즉 물체의 운동에너지가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로 완전히 변환될 때 물체는 최고점에 다다르게 된다. 이때 원형 튜브를 따라 움직이는 물체는 굴림 없이 미끄럼 운동만으로 원형튜브 내를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논제 2의 b)에서는 원형 튜브를 한 바퀴 돈 질량이 M인 (물체 1) 물체가 스프링에 매달려 있는 질량이 m인 물체(물체 2)와 완전 탄성 충돌을 할 경우 마찰력에 의한 에너지 손실로 인해 물체 1이 가지는 운동에너지가 줄어들게 된다는 점을 묻고 있으며 논제 2의 a)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 변환과정을 다루고 있다. 마찰력은 표면 수직항력에 마찰계수를 곱해서 얻을 수 있으며 마찰력에 의한 일, 즉 에너지 손실은 마찰력에 변위를 곱해서 얻을 수 있다. 이때 논제 2의 a) 결과를 이용하면 물체 1의 초기속력을 구할 수 있다.

논제 2의 c)는 물체 1의 초기속도가 a)와 b)에서 구한 물체 1의 초기속도의 최솟값과 최댓값 사이를 가질 때 원형 튜브와 물체 2사이에서 왕복 운동을 하게 되는데, 왕복운동 시 스프링에 의한 마찰력 때문에 물체 1의 운동에너지는 계속 감소하여 멈추게 된다. 이때 n번째 왕복운동에서 물체 1이 원형 튜브로 올라간 높이를 구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논제 2의 d)는 c)에서 구한 n번째 왕복운동의 횟수를 주어진 조건들을 사용하여 구할 것을 요구한다. 물체 1은 주어진 조건에서  $n = 20$ 번 진동한 후  $n = 21$ 번째는 왕복운동을 할 수 없고 멈추게 된다는 물리적 사실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논제 2에서는 역학적 운동을 하는 계에서 물체의 에너지 변환과 이를 이용하여 여러 조건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물체의 운동을 해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 2) 우수답안 사례

- a) 물체의 초기 운동 에너지는  $K = \frac{1}{2}Mv^2$ 이다. 물체가 원형 튜브(튜브) 내에서 초기속력  $v$ 를 가지고 원동을 할 때 최고점에서 중력에 의해 떨어지지 않고 원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K$ 가 최고점에서의 위치에너지  $U_1 = Mg \cdot 2R$  보다 커야 한다. 여기서  $g$ 는 중력가속도이다. 따라서  $v_{\min} = 2\sqrt{gR}$  이 되어야 한다.
- b) 물체가 회전 튜브 한 바퀴 돌면 원형 튜브의 최저점에서는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  $K$ 으로 변환된다. 따라서 물체가 벽면과 완전 탄성 충돌 후  $x=0$ 에 도달하였을 때의 속력을  $v_1$ 이라하면 에너지 보존법칙에 의해서  $\frac{1}{2}Mv^2 = \frac{1}{2}Mv_1^2 + 2\mu_k Mg d$  을 만족한다. 따라서  $v_1 = \sqrt{v^2 - 4\mu_k g d}$  이 된다. 이제 a)의 결과를 이용하면  $v_{\max} = 2\sqrt{gR + \mu_k g d}$  가 된다.
- c) b)의 결과로부터 스프링에서 한번 진동 후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K_1 = \frac{1}{2}M(v^2 - 4\mu_k g d)$  이고  $n$  번 진동한 후에는  $K_n = \frac{1}{2}M(v^2 - 4n\mu_k g d)$  이 된다.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  $K_n = Mgh_n$  에 대입하여 구하면  $h_n = \frac{1}{2g}(v^2 - 4n\mu_k g d)$  를 얻을 수 있다.
- d) 문제 3에서  $h_n > 0$ 인 조건은 물체가  $n$ 번 왕복운동한 후 멈출 조건이 된다. 따라서  $v_{\max}^2 - 4n\mu_k g d > 0$  이 된다. 이 식을 정리하면,  $n < 1 + \frac{R}{\mu_k d}$  이 되고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n < 21$  이 되어 최대 20번 왕복 운동하게 된다.

## 3) 부족답안 사례 및 평가

- a)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하지 않고 힘의 평형만으로 문제에 접근하여 즉, 물체가 최고점에서 수직항력을 받는 상황이라 잘못 판단하여 구심가속도로부터 구한  $v_{\min} = \sqrt{5gR}$  은 틀린 답안으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였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이하려고 하였지만 출제 의도는 까다로운 수 있는 힘의 평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쉽게 풀이할 수 있어 에너지 보존 법칙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었다.
- b) 물체 1이 평면과의 마찰력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계산하여 물체 1의 운동에너지 감소로 나타나고, a)의 결과와 결합하여 물체 1의 최고점의 높이로부터 물체 1의 초기 속력을 구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일부 학생들이 마찰이 있는 경우 수식은 잘 기술하였으나 전체적인 물리적 상황에 맞게 설정하는 능력이 부족하였다. 이는 단순 공식 암기만으로

해결 할 수 없고 물리적 상황을 옳바로 이해하고 그에 맞게 공식을 적용하는 물리학적 능력을 요구한다.

c) 물체 1이 원형 튜브 스프링 사이에서  $n$ 번 왕복 운동할 때 한번 왕복운동에서 잃게 되는 에너지를 물체 1의 운동에너지에서  $n$ 번 곱하여 에너지 감소로 표현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n$ 번 왕복운동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정확히 기술하지 못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d) 본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에너지 보존법칙을 활용하여 얻어진 결과와 물리 변수가 측정값 또는 상수로 주어질 때 옳바른 결과를 유추할 수 있는 물리량의 정량적 해석 능력이 필요하다. 주어진 조건들을 잘못 대입하거나, 부등식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n = 20$ 이 아닌  $n = 22, 21, 19$  등 반복횟수가 틀린 경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 다) 논제 3

### 1) 출제 의도

제시문 (가)는 촉매 나노입자의 표면적과 나노촉매의 반응성이 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제시문 (나)는 결정의 표면 구조의 원자 배열을 도시하고 있으며 표면에 있는 원자에 인접해 있는 원자가 몇 개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제시문 (다)는 인접한 물 분자의 개수가 더 많은 내부 물 분자가 표면 물 분자보다 에너지 관점에서 더 불안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제시문 (라)에서는 전기화학 반응이 물질의 표면에서 최초로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 2) 논제 해설 및 평가

#### (가) 논제 3 (a)

##### (1) 논제 해설

주어진 부피의 입자를 잘게 쪼개어 얻어지는 나노입자 표면적을 정량적으로 구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제시문 (가)로부터 나노입자의 표면적과 촉매반응의 반응성 간에 비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노입자의 크기가  $1/2$ 로 줄 때 마다 표면적은 2 배로 늘어난다는 것을 그래프로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2) 예시 답안

나노촉매의 반응성은 화학반응의 생성물의 양에 비례하고 나노입자 표면에 노출된 표면 원자들이 이 화학반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므로 나노촉매의 반응성은 나노입자의 표면적과 비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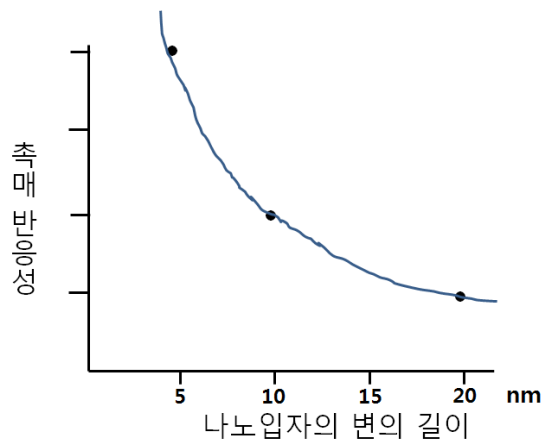
한 변이 20 nm 인 정육면체 입자를 쪼개어 10 nm 의 변을 가지는 정육면체를 만드는 경우를 고려해 보자.

20 nm 나노입자의 표면적:  $6 \times 20 \times 20 \text{ nm}^2$

10 nm 나노입자의 표면적:  $6 \times 8 \times 1/2 \times 1/2 \times 20 \times 20 \text{ nm}^2 = 2 \times 6 \times 20 \times 20 \text{ nm}^2$

즉 입자크기가 1/2 로 줄어든수록 표면적은 2배가 되고 반응성은 2배가 된다.

이를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다.



## (3) 평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위의 입자크기와 촉매반응성 간의 역의 관계를 정확히 도출하였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채점 시 감점되었다.

- 그래프에 정량적인 관계를 정확히 도시할 수 있음에도 대충 그린 경우
- 나노입자가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표면적이 늘어나는 구체적인 관계를 예시하지 않거나 도출 하지 못한 경우

(나) 문제 3 (b)

(1) 문제 해설

그림 B의 표면 원자는 6개의 인접 표면 원자가 있고 그림 C의 표면 원자는 9개의 인접 원자가 있어 그림 B가 가장 불안정하고 그림 C가 가장 안정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2) 예시 답안

물방울의 표면에 있는 물 분자는 인접한 물 분자의 개수가 적을수록 가능한 수소결합의 수가 작아서 불안정해진다. 마찬가지로 나노입자의 표면에 있는 원자의 주변 원자의 개수가 가장 작은 표면이 가장 불안정하다. A의 경우 표면에 있는 원자는 4개의 표면 원자와 4개의 내부원자가 둘러싸고 있다. B의 경우 4개의 내부원자와 2개의 표면 원자가 둘러싸고 있으며 C의 경우는 3개의 내부원자와 6개의 표면 원자가 둘러싸고 있다. 즉 6개의 인접원자가 있는 B 표면의 가장 불안정하며 9개의 인접원자가 있는 C 표면이 가장 안정하다.

(3) 평가

화학 교과서에 격자와 원자간의 관계가 기술 되어 있음에도 다수의 학생들이 주어진 A, B, C 그림이 방향만 다를 뿐 동일한 하나의 격자를 바라보는 것임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즉 어떠한 면이 노출되게 자르더라도 나노입자의 표면적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나노입자의 표면적에 차이가 미미한 경우 나노입자의 표면에 있는 원자의 에너지 상태가 나노입자의 촉매 반응성을 결정짓게 된다. 이러한 관계를 혼동한 경우 감점 요인이 된다.

(4) 부족 답안의 사례

- C의 경우 노출된 원자의 개수가 가장 많으므로 표면적이 가장 커서 가장 반응성이 우수하다.

(다) 문제 3 (c)

(1) 문제 해설

나노입자의 표면적을 증가시키거나 나노입자의 표면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두 가지의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특히 전자의 경우 나노선이나 나노판의 구조를 만들면 나노입자의 표면적이 증가한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 (2) 예시 답안

나노입자의 촉매 반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물질의 양에서 나노입자의 표면적을 증가시키거나 높은 에너지를 지니는 즉 불안정한 표면 구조를 지니도록 하면 된다.

첫째, 나노입자의 표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구형의 형태에서 탈피하여 평면 구조 또는 선형 구조를 지니는 나노구조를 형성하면 표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10 nm 의 변의 길이를 지니는 정육면체 나노입자를 이용하여 5 nm × 10 nm × 20 nm 의 나노판 형태를 만들 수 있는데 이 경우  $6 \times 10 \times 10 \text{ nm}^2$  의 나노구조 표면적에서  $2 \times 5 \times 10 + 2 \times 5 \times 20 + 2 \times 10 \times 20 = 7 \times 10 \times 10 \text{ nm}^2$  의 표면적으로 나노입자의 표면적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5 nm × 5 nm × 40 nm 의 나노선 형태를 만드는 경우  $2 \times 5 \times 5 + 4 \times 5 \times 40 = 85 \times 10 \times 10 \text{ nm}^2$  으로 표면적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둘째, 노출된 나노입자의 표면에 있는 원자가 인접원자의 개수가 적도록, 또한 인접 원자와의 거리를 더욱 멀리 배치된 표면 구조를 가지도록 하여 표면 원자의 에너지가 불안정하도록 나노입자를 합성하면 된다.

## (3) 부족 답안의 사례

나노입자의 촉매 반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나노입자의 표면적을 증가시키거나 불안정한 표면 구조를 지니도록 하면 된다.

이 경우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서술이 없어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 (라) 문제 3 (d)

## (1) 문제 해설

산화 반쪽 반응과 환원 반쪽 반응을 이용하여 다음 반응식을 쓸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또한 3개의 Ag 원자가 하나의 Au 원자와 반응한다는 것과 Ag 나노입자의 표면 원자가 먼저 반응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2) 예시 답안

$$\text{Au}^{3+} + 3\text{Ag} \rightarrow \text{Au} + 3\text{Ag}^+ \quad \text{표준 전지 전위 } V = 0.62$$

첫째 은 나노입자의 표면에 있는 은 원자가 반응에 먼저 참여할 것이다. 또한 세 개의 은 원자가 한 개의 금 이온과 반응을 하므로 얻어지는 최종 나노입자는 그 부피가 은 나노입자보다 작을 것이다. 그러므로 표면의 은 원자가 먼저 반응을 하여 부피가 조금 줄어들, 내부는 은으로 구성되고 외부는 금으로 구성된 나노입자가 형성될 것이다.

(3) 평가

다수의 학생들이 알짜 반응식은 정확히 파악하였으나 표준전위 계산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4) 부족 답안의 사례

$$\text{Au}^{3+} + 3\text{Ag} \rightarrow \text{Au} + 3\text{Ag}^+ \quad \text{표준 전지 전위: } -0.98 \text{ V}$$

금으로 이루어진 나노입자에 은 이온이 갇혀 있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 답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 위의 전위는  $1.42 - 0.8 \times 3$  에서 나온 값으로 잘못된 전위 계산이다.
-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다.

라) 논제 4

1) 출제 의도

논제 4의 제시문은 생물학의 기본인 분류,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에서부터 진화 및 최근의 생명과학 기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을 다룬 문제이다. 논제에서는 면역 반응에 대한 내용까지도 묻고 있다. 즉 생물 1과 2의 과정에서 주요한 부분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통합 연계적 사고가 가능한지 묻는 문제를 냈다. 생물학의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심화 내용까지를 다루었다.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몰아서 고교 생물과목 전 과정을 성실히 수행했는지를 묻고자 하였다.

제시문에는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충분한 기본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제시문과 연결된 그림은 모두 생물교과서에서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특정 용어의 핵심 개념을 수험생이 미리 알고 있다면 수월히 풀 수 있는 문

제가 출제되었다.

## 2) 논제 해설 및 평가

### (가) 논제 4 (a)

#### (1) 논제 해설

종 분화란 한 집단이 두 집단으로 나뉘고 궁극적으로는 생식적으로 격리된 집단으로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개체 수준에서 일어나는 진화는 종 분화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종 분화를 설명하는 모델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모델은 '지리적 격리'에 의한 분화 모델이다. 이 '지리적 격리'에 의해 일어나는 분화를 다른 말로는 '이소적 종 분화 (allopatric speciation)'라고 한다. 즉,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종 분화라는 뜻이다. 한편, 세포 수준에서의 진화과정을 보면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을 세포 내 소기관으로 구획화하여 다른 지역과 구분을 시켰다. 즉, 세포 내 소기관의 구획화를 이용해 각 기능을 서로 구분시킴으로써 좀 더 복잡한 세포 기능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시문 (가)에 나오는 '이소적 종 분화'라는 핵심 용어의 뜻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제시문 (나)의 세포 내 소기관의 구획화와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2) 예시 답안

제시문 (가)에서는 '생식적 격리' 를 통해 종이 분화됨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나)에서는 세포 내에서 생체막으로 구획을 나누어 각각의 기능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가)와 (나)는 모두 '분리' 로 인해 생기는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중략)... 따라서 개체수준과 세포 수준에서 진화의 원동력은 '지리적 격리' '분리' 이며, 이등 때문에 종이 다양해지고, 세포 소기관들이 다양해져서 진화하게 된다... (하략)

#### (3) 평가

집단내의 '지리적 격리'와 세포 내의 '구획화'의 공통점을 잘 추론했으며 진화의 원동력이 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였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았다.

(4) 부족 답안의 사례

개체 수준과 세포 수준에서 진화의 원동력은 자연선택이라는 유사성이 있다. 개체는 돌연변이의 축적 때문에 종 분화가 일어나서 다양성이 증가한다. 다양한 종 가운데 효율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종들이 자연 선택되어서 살아남는다. 세포의 경우 세포 소기관이 구획화되어 효율적인 세포를 가진 생명체가 자연 선택된다... (하략)

논제에서 물어보는 핵심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시문을 풀어쓰는데 그쳤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나) 논제 4 (b)

(1) 논제 해설

종 분류를 최초로 체계화시켰던 린네는 형태적 차이에 근거하여 종 분류를 하였다. 이런 분류 체계는 초기에 잘 적용되었지만, 생물학적 지식이 축적되면서 이 형태적 분류가 잘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그중의 한 예가 제시문 (다)에 나오는 디티오스텔리움이다. 디티오스텔리움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자신의 형태를 독립된 세포, 이동체, 자실체로 변화시킨다. 이들은 형태적으로 전혀 다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세포에서 기인한 것들이다. 이 문제는 형태적 차이에 의한 종 분류 체계를 더는 사용하지 않게 된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린네의 종 분류 체계가 어떤 차이를 이용해서 종 분류를 하는지 수험생이 이해하고 있다면 디티오스텔리움과 린네의 종 분류 체계와의 부적합성은 쉽게 추론할 수 있다.

(2) 예시 답안

디티오스텔리움은 먹이가 부족하면 이동체를 만든다. 이 이동체는 걸모양이 독립형 세포인 아메바형과 다르다. 따라서 이들은 린네의 분류 체계에 의하면 다른 종으로 분류된다... (중략)... 린네의 분류체계는 형태적으로 유사하면 같은 종으로 보기 때문이다. 각각의 생활사 역시 먹이 섭취, 생식 등의 여러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린네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서로 다른 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것이다.

(3) 평가

린네의 분류 체계의 정의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디티오스텔리움의 각 생활사형 간의 형태적 차이가 고전 종 분류와 현대 종 분류 체계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잘 추론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았다.



## (4) 부족 답안의 사례

딕티오스텔리움이 재조직화하여 이동체가 되면 다핵성 거대 세포질인 점균류와 모양이 비슷하다. 따라서 린네의 분류체계에 의하면 같은 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중략)... 하지만 이동체는 각 세포가 자신의 원형질막을 가지고 서로 다른 세포 덩어리로 생식하기 때문에 현대 분류 체계로는 다른 종으로 분류해야 한다.

딕티오스텔리움의 각 형태는 린네의 분류 체계에 의하면 다른 종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같은 종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거꾸로 답안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 (다) 논제 4 (c)

## (1) 논제 해설

딕티오스텔리움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형태를 변화시킨다. 특히 독립형 세포로 사는 생활사 시기가 있고, 세포 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이동체나 자실체의 형태로 사는 생활사 시기가 있다. 이런 형태적 변화는 진화 과정에서 '개체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딕테오스텔리움이 보이는 '원시 농업'의 형태와 유사한 대표적 사례로는 '개미와 곰팡이'의 관계가 있다. 원시 농업이 진화과정에서 갖는 이익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려면, 먼저 진화과정의 기본 전제인 '경쟁을 통한 자연 선택'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에 비해 원시 농업적 행동은 사회적 협동을 통해서 생존에 이익을 주는 형태라는 것을 제시문을 이용해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나)와 (다)에서부터 '경쟁'과 '사회적 협동'을 끌어내고 대비시켜 논할 수 있어야 한다.

## (2) 예시 답안

진화생물학에서는 진화의 원동력으로 '자연선택'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주어진 환경에서 '생존 경쟁'을 통해 선택된 개체만이 살아남아 우점종으로 퍼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시문 (다)의 딕티오스텔리움은 '조직화함으로써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 서로 경쟁해야 할 개체들이 '경쟁하지 않고 서로 사회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진화생물학에서 자연선택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중략)... 원시 농업적 행동은 '개미와 곰팡이'에서 볼 수 있다. 개미는 신선한 잎을 잘라서 자신의 굴로 가져가고 자신이 키우는 곰팡이에게 죽 먹이로 제공한다. 곰팡이를 재배한 개미는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균사를 먹으면서 성장한다... (하략)...

## (3) 평가

경쟁을 통한 자연 선택'과 '사회적 협력을 통한 생존에서의 이익'을 잘 추론하였다. 원시 농업의 사례도 잘 들고 논제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잘 설명하였다.

(4) 부족 답안의 사례

높은 수준으로 진화되지 않은 하등한 생명체에서 고등한 생명체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특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생명체의 진화 정도가 특성의 진화 정도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 (중략)… 이 원시 농업적 행동이 유전자 손실을 방지하여 자신의 유전자 다양성을 높여준다. 따라서 다양한 유전자형의 개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상호 관련성이 떨어지는 원시 농업과 유전자 다양성과의 관계를 제시하면서 설명하였다. 유전자 다양성을 연결하려고 한 시도는 좋았으나, 부연 설명의 합리성과 논리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라) 논제 4 (d)

(1) 논제 해설

진화의 개념을 잘 알고 이를 방향적 진화에 응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제시문 (라)의 유전자 조작 기법에 대한 소개는 생물교과서에서 내용을 발췌하였고, 제시문 (마)의 파지디스플레이는 그 기법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이 두 제시문을 통하여 진화의 중요 개념인 다양성과 선택에 관한 내용을 추론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즉, 실험에 대한 자세한 방법론을 설명하기 보다는 핵심 개념을 이해하는지를 묻고자 하였다.

(2) 예시 답안

제시문 (바)의 파지디스플레이처럼 이미 구축된 DNA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정확도가 낮은 DNA중합효소를 사용하여 일단의 다양한 유전자 풀을 만들어야 한다……. (중략: 제시문 (마)의 재조합 DNA 만드는 과정)… 이를 통하여 다양한 유전자의 산물인 많은 돌연변이 단백질이 만들어질 것이고, 인간이 원하는 성질을 가진 돌연변이체를 선별해 내는 과정이 중요하다… (중략)… 이러한 방향적 진화방법은 생물학적 진화에 비해서 매우 짧은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원하는 유전자 산물을 빨리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생물학적 진화는 매우 느리게 일어나고 외부 환경 등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중략)… 방향적 진화는 항상 인간이 의도한 방향으로 진화의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단백질 등을 생산해 내는데 유용하다.

(3) 평가

생물계에서 나타나는 돌연변이를 시험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일단 다양한 유전자 풀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잘 기술하였다. 선택과정의 경우도 생물계에서 나타나는 오랜 기간이 아닌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매우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추론하였다. 진화 속도와 환경 변화에 대한 것도 언급하였다.

## (4) 부족 답안의 사례

미량의 DNA를 PCR 방법으로 증폭하여 벡터에 삽입한다. 이 때 제한효소를 이용하여 자르고 DNA 연결 효소를 이용하여 연결한다. 이를 박테리오파지에 삽입한다... (중략)... 생물학적인 진화는 좋은 방향의 진화와 나쁜 방향의 진화가 존재하는 방향적 진화는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진화를 하고, 시간이 매우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실험방법을 디자인하라는 논제에 대하여 많은 학생들은 제시문 (마)와 (바)의 재조합 DNA를 만드는 과정이나 파지디스플레이 실험과정을 거의 다시 옮겨 적는 수준으로 작성한 학생들이 많았다. 장점으로 진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은 부분 점수를 받았으나, 나쁜 방향의 진화란 개념은 잘못된 것이다. 진화의 속도가 환경의 변화보다 느려서 적응을 못하는 것일 뿐이다.

## (마) 논제 4 (e)

## (1) 논제 해설

생명체의 많은 반응들은 다양한 생체 물질들 중에서 선택된 분자만이 특이성을 가지고 결합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계의 항원-항체 반응이다. 제시문 (바)의 파지디스플레이 기법은 고교과정에서 나오지 않는 내용이지만 자세한 제시문을 통하여 기본 개념과 방법론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생물 1 교과에서 다루지고 있는 면역계의 항원-항체 반응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고자 하였다.

## (2) 예시 답안

파지디스플레이 기법에서 사용되는 표적단백질은 항원-항체 반응의 항원이라 볼 수 있다. 우리의 면역계에서도 외부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항원으로 인식한다... (중략)... 파지디스플레이의 파지 표면에 발현되는 수많은 표면단백질을 마치 항체처럼 표적단백질에 선택성을 가지고 결합하게 된다. 실제로 항체의 특정부위에 발현되는 다양한 아미노산 서열만을 이용하여 항원을 인식한다... (중략)... 항원-항체 반응은 매우 결합력이 강하고 선택적이다. 파지디스플레이방법도 결국 여러 번의 선별과정을 거치게 되면 표적단백질에 매우 강한 결합력을 가지고 선별적으로 결합하는 표면단백질을 얻을 수 있고, 그 표면단백질의 DNA 서열 또한 추후 분석할 수 있다... (하략)...

## (3) 평가

파지디스플레이와 항원-항체 반응이 단백질-단백질 결합이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항원에 대해서 수많은 항체 중 특성의 항체가 선택적으로 결합한다는 사실을 파지디스플레이 방법의 선택성과 결부하여 잘 이해하고 있다. 항체의 특정부위만 유전자의 변이가 있어서 다양한 항체가 만들어 진다는 사실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부족 답안의 사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항원이 침입했을 때 림프구를 이용하여 항체를 만든다... (중략)... 이를 통하여 면역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몸속의 기억세포가 기억하여 항체를 계속 생산하게 된다. 이런 항원-항체 반응은 구조적으로 유사한 단백질들 간의 /:/ 반응이다... (하략)...

대부분의 학생들이 항원-항체 반응의 개념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항원이 침입했을 때 림프구를 이용하여 항체를 만드는 과정을 적은 학생들이 많았다. 즉 실제로 논제에서 묻고 있는 과지디스플레이 방법과 비교해서 설명하지 못했다.

마) 논제 5 (지구과학)

1) 출제 의도

금번 모의논술 자연계 지구과학 분야에서는 정상적인 고등학교 지구과학 교육을 받은 학생이면 쉽게 풀 수 있는 평이한 수준에서 지구과학 세부 분야들의 기본 지식에 기반한 통합적 사고방식을 평가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특히 지구역사상 여러 번에 걸쳐 일어난 생물종의 대멸종 사건, 그 중에서도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기에 걸쳐 일어났던 최대 규모의 멸종 사건(Great Dying)인 “End-Permian Extinction(EPME)”에 대하여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제시한 후에, 해당 지층의 지질기록에서 유추할 수 있는 지구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지질학적 기록이 암시하고 있는 지구환경 변화를 현재 범지구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와 대비함으로써, 지구과학의 기본 사고체계, 즉 과거로부터 현재를 이해하고 또한 나아가 미래 환경을 예측하는 과정에 대한 방법론에 대하여 문제를 구성하였다.

2) 논제 해설

수험생들이 과학적 연구 성과에 대한 기술을 정확히 이해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통합과학적이고 시스템과학적인 사고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다소 복잡한 제시문(지구과학적 발견에 대한 기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중요한 논지를 추출함으로써 논제가 요구하는 바를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

주어진 제시문 (가)에서는 지질시대별 생물종의 멸종도를 상대 %로 제시하고 있다. 생물종의 멸종도는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하는 지질시대별 지층 중에 남아있는 화석기록을 연구함으로써 얻어진다. 이 자료를 보면, 주요 지질시대의 경계에서 주요한 대멸종의 사건들이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이는 고체지구의 거대한 변화, 즉 판구조운동의 변화에 따라 지구적 규모의 대규모 환경변화가 초래되며, 이는 지구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권역의 급격한 변화를 야

기함을 지시한다.

제시문 (나)는 지구역사상 최대 규모의 EPME 사건에 관한 간단한 요약 설명이다. 지구에 존재하던 대부분의 육상 및 해양생물의 대규모 멸종이 있어났으며, 이때 살아남은 극히 일부의 생물종은 다음 지질시대의 대표 생물이 되었음을 알려준다.

제시문 (다)에서는 EPME에 관한 여러 연구 중 최근에 발표된 연구 자료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주어진 예시(그림 2)는 고생대 말~중생대 초의 지층이 잘 발달하여 있는 중국 남부 메이산 지역의 통합 연구 성과이다. 주어진 그림을 보면, 페름기 말에서 트라이아스기 초에 걸쳐 화산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지층 중에 포함된 화산분출물의 양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급격한 화산활동은 흔적화석(trace fossils)의 기록으로 반영되었는데, 특히 미고결 퇴적층 중에 굴을 파고 사는 굴형성 생물들의 흔적이 화산활동의 극대점을 기준으로 급격히 감소함을 보여준다. 이는 굴형성 생물의 대규모 멸종을 나타낸다. 생물에 의한 미고결 퇴적층의 조직 교란, 즉 생교란의 흔적도 뚜렷이 감소하는데, 이 역시 생물종의 멸종에 기인한다. 또한, 해양생태계에서는 탄산칼슘( $\text{CaCO}_3$ )으로 구성된 산호와 더불어 대형조류의 멸종이 뚜렷하며, 이는 탄산칼슘의 생합성(biosynthesis), 즉 석회질 피각을 갖는 생물들의 서식이 해당 기간 동안 불가능했음을 지시한다. 산성화된 해수에서는 탄산칼슘의 생합성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역시 탄산칼슘 피각을 갖는 유공충(foraminifera)과 완족류(brachiopods) 또한 감소하였다. 육상생태계에서는 특히 대규모 육상식물의 종 감소가 뚜렷한데, 특히 늪지대, 소택지에서 서식하는 대규모 식물의 생태계 피해로 말미암아 석탄층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 3) 예시 답안과 평가

#### (가) 논제 5 (a)

##### (1) 예시 답안

판게아(2억5천2백만년전의 잇따른 대륙 충돌로 만들어진 초대륙)에서의 화산활동, 특히 맨튼 기원의 화산활동은 막대한 양의 화산가스(이산화탄소 등)과 화산분출물을 방출하였다. 더욱이 시베리아 화산활동은 석탄층의 대규모 연소를 야기하여 온실가스인 메탄의 농도 증가를 야기하였다.

물론, 화산활동 초기에 분출된 막대한 양의 화산먼지는 태양광의 유입을 차단하여 일시적으로 대규모의 지표 냉각을 야기하였을 것이지만, 곧이어 온실가스의 농도 증가에 따른 오랜 기간의 농도 상승이 지속되었을 것이다.

한편, 온실가스의 농도 증가(실제, 이 시기의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 추정치는 약 2000 ppm에 도달한 것으로 해석)는 해수에 녹는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를 야기하고, 이는 결국 해양 산성화를 초래했을 것이다.

##### (2) 평가

- 온실가스 농도 증가 및 이와 관련된 해양 산성화에 대한 논리적 추론 여부

(나) 논제 5 (b)

(1) 예시 답안

해양산성화로 대표되는 대규모 해양환경 변화는 특히 해저 퇴적층에 곳을 파고 서식하는 굴형성 생물들의 대규모 멸종을 야기하였다. 또한, 바닷물 속의 칼슘으로부터 탄산칼슘을 생합성하여 피각을 만들어 살아가는 석회질 조류, 산호, 유공충 등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는데, 이는 산성화된 해양환경에서는 탄산칼슘의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2) 평가

- 해양 산성화와 탄산칼슘 용해도 변화의 인과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함.

(다) 논제 5 (c)

(1) 예시 답안

트라이아스기가 시작된 후에 형성된 석탄층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후에도 아주 얇거나 끊위가 낮다. 이는 석탄층을 형성하는 식물들의 멸종이 주된 원인으로 생각된다. 탄층을 생성하는 대규모 식물 군락은 소택지 환경에서 발견되는데, 따라서 이러한 육상생태계가 도양 및 대기의 산성화에 의해 소멸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산성화된 대기 및 강우는 광합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밖에, 화산활동에 의해 대기로부터 낙하한 화산쇄설물의 양이 증가하여 식물의 광합성을 저해하여 식물종의 성장을 저해했을 가능성도 있다.

(2) 평가

- 석탄층 생성 식물의 성장 환경과 대기 산성화 또는 광합성 간의 상관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함.

(라) 논제 5 (d)

(1) 예시 답안

해양 무척추동물 중에서는 일부만이 산성화된 해양환경에서 완전히 멸종하지 않고 일부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들은 산성화에 대한 면역성 내지 저항성이 큰 일부 동물들이었다.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해양 환경에서 살아남은 이들 동물은 특별한 가스 교환 기작을 갖거나 탄산칼슘 피각의 모양이 특별하여 용해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들이었는데, 대표적인 예는 암모나이트이다. 그밖에, 갯나리류(crinoids)도 완전 멸종을 면할 수 있었다.

(2) 평가

- 중생대 대표적인 시준화석인 암모나이트를 답하면 됨

## (마) 논제 5 (e)

## (1) 예시 답안

EPME 사건은 자연적인 지질과정에 의해 촉발된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즉 자연적인 온실효과에 의해 대규모 지구 생물종의 멸종이 야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최근의 지구온난화는 자연적인 과정이 아니라 인간에 의한 과정(특히 화석연료의 사용)이 그 원인이다.

한편, 두 과정 모두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에서 기인하는 연속적인 지구시스템 변화의 결과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즉, 양자 모두 암권-기권-수권-생물권으로 연결된 지구시스템에서의 탄소순환에 관련된 문제이다.

## (2) 평가

- 지구시스템의 탄소순환과 관련한 차이점과 유사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함

본 논술자료집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고려대학교에 있습니다.  
본교의 서면허락 없이 무단으로 출판, 게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행일 : 2012년 7월

발행인 : 고려대학교 입학처장 이재원

편집인 : 고려대학교 입학처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입학처

전화 02)3290~1090

팩스 02) 921~0139

---

<비매품>